

2023년 중국 대외무역의 특징과 한·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정지현 세계지역연구1센터 중국팀장 (jhjung@kiep.go.kr, Tel: 044-414-1280)

양평섭 세계지역연구1센터 중국팀 선임연구위원 (psyang@kiep.go.kr, Tel: 044-414-1121)

박민숙 세계지역연구1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위원 (mspark@kiep.go.kr, Tel: 044-414-1511)

김홍원 세계지역연구1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위원 (hwkim@kiep.go.kr, Tel: 044-414-1278)

차례

1. 2023년 중국 무역의 특징 및 세계무역 내 위상 변화
2. 중국 수출입 품목의 구조 변화와 특징
3. 한·중 무역관계 변화와 특징
4. 평가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대내외 수요 부진,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의 영향으로 중국의 상품무역이 2023년 5% 감소하였으며, 선진경제권의 대중국 무역의존도 하락, 개도국으로의 교역 대상 전환, 중국 수출입 내 외자기업 비중 축소 등의 특징이 나타남.
 - ASEAN이 중국의 최대 교역지역으로 부상하였으며, 중남미, 러시아 등 신흥경제권과 중국 간 교역 비중은 상승한 반면 미국, EU, 일본, 한국 등 선진경제권 비중은 축소됨.
 - 세계의 대중국 수출입 의존도는 팬데믹 이전인 2018년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세계 수출시장 및 핵심광물 수입시장에서 중국의 위상은 더욱 강화되고 있음.
- ▶ 중국은 2023년 자동차 수출 약진으로 세계 1위 자동차 수출국으로 부상하였고, 광물 수입 및 에너지 적자의 증대로 1차 산품 적자가 확대되었으며, 특히 핵심광물의 전략적 수입이 급증함.
 - 중국의 중간재 중심 무역구조가 수출에서는 더욱 강화되고 수입에서는 악화되면서 리튬이온 배터리(626억 달러), 태양전지(393억 달러), 전기차(319억 달러), 스마트폰(1,356억 달러) 등의 흑자가 두드러진 반면, 철광석·금 등 광물 수입 증가와 원유 등 에너지 적자 확대로 1차 산품의 적자(7,633억 달러)는 더욱 증가함.
 - 세계 생산에서 중국의 비중이 낮은 구리, 니켈 등에 대한 수입 증가뿐만 아니라 중국 생산 비중이 60% 이상인 공급망 우위광물 희토류, 바나듐에 대해서도 중국의 수입이 급증하였고 수출은 감소함.
- ▶ 한국의 대중국 무역이 ICT 경기 및 구조적 요인 등으로 2023년 적자(180억 달러)로 전환되었고, 대표 흑자품목인 중간재 및 전자·화학 흑자가 급감하였으며, 핵심광물을 중심으로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상승함.
 - 대중 흑자를 주도하던 전자·화학 흑자가 크게 하락하고, 반도체(HS8542)를 제외한 중간재가 적자(75억 달러)로 전환되었으며, 핵심광물에 대한 대중국 무역적자 및 수입의존도가 최근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
 - 글로벌 ICT 경기 악화로 중국의 ICT 수입이 급감하면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 및 무역수지가 악화되었으며, 대중국 수출경쟁력 약화, 중국 수입시장 내 경쟁력 저하 및 중국의 중간재 국산화 등 요인도 작용함.
- ▶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와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 간 괴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중국 의존 심화와 중국의 자급화 및 수입선 다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대중무역의 적자 구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 중국의 새로운 산업 수요에 대한 우리의 공급 능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주요 광물 생산국과의 다각화된 국제협력 추진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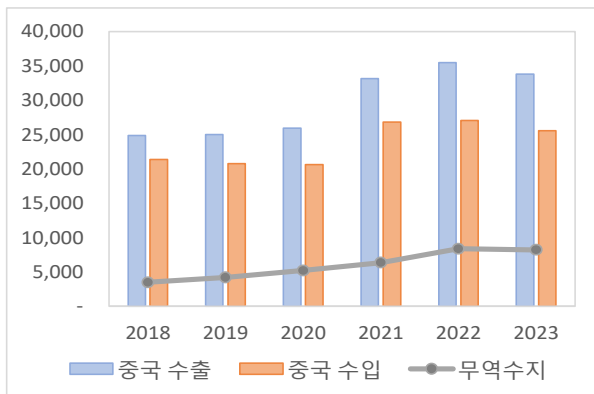
1. 2023년 중국 무역의 특징 및 세계무역 내 위상 변화

가. 중국 수출입 추이 및 위상 변화: 무역 둔화 속 핵심광물 수입 위상 강화

- 2023년 중국의 상품무역 규모는 대내외 수요 부진 및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5% 감소한 5조 9,368억 달러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함.
 - 주요국의 고물가·고금리·부채 누적, 러·우 전쟁 및 미중 경쟁 등 지정학적 갈등으로 세계경제의 회복 및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가 더딘 상황에서, 부동산 및 부채 리스크 등으로 중국 내수의 회복세까지 악화되어 수출(3조 4천억 달러) 및 수입(2조 6천억 달러) 증가율이 각각 4.6% 및 5.5% 감소함.¹⁾
 - 이러한 중국의 2023년 수출입 감소세(-5%)는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을 받은 2019년(-1%) 및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1.7%)보다도 심화됨.
 -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이자 미중 무역분쟁이 시작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의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6.3%로 수입 증가율(3.7%)을 크게 상회하며, 무역수지의 증가율은 18.6%에 달함(2018년 3,509억 달러→2023년 8,232억 달러).

그림 1. 중국의 수출입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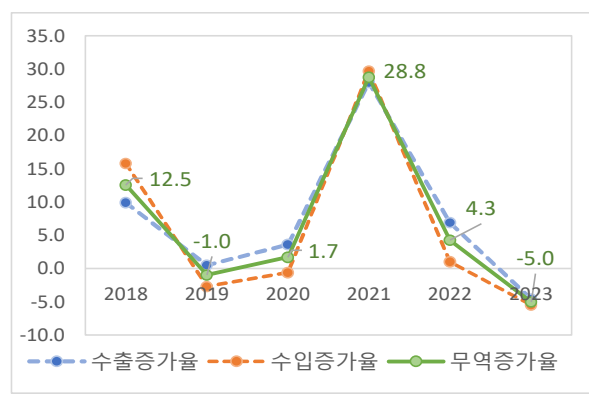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자료: 중국해관통계, CEIC.

그림 2. 중국의 수출입 증가율 추이

(단위: %)



자료: 중국해관통계, CEIC.

- 2023년 중국의 수입 감소는 단일 품목(HS코드 4단위) 기준,²⁾ 최대 수입 품목인 반도체 및 원유 수입 감소의 영향이 매우 크며, 수출 감소는 주로 자동차자료처리기기 및 유무선통신기기 등에 기인함(표 1 참조).
 - 중국 전체 수입에서 반도체(HS8542) 및 원유(HS2709)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3.7% 및 13.1%로 가장 높으며, 2023년 이들 품목의 수입 감소분이 전체 수입 감소의 43.1% 및 16.5%를 차지함.
 - 최근 5년간(2018~23년) 반도체 및 원유의 수입 비중이 26~27%로 유지되고 있어, 중국의 수입이 최상위 2개 품목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1) 위안화 기준으로는 중국의 무역 증가율이 0.2%, 수출 및 수입 증가율은 각각 0.6% 및 -0.3%임. 海关总署2023年全年进出口情况新闻发布会(2024. 1. 12.), <http://www.customs.gov.cn/customs/xwfb34/302330/5625690/index.html>.

2) HS코드 4단위 기준으로, 2023년 중국의 수입 품목 수는 1,196여 개이며, 수출 품목 수는 1,216여 개임(중국해관통계 기준).

- 중국 전체 수출에서 유무선통신기기(HS8517), 자동차자료처리기기(HS8471), 반도체(HS8542)의 비중은 약 15%로, 2023년 중국의 수출 감소에 대한 이들 품목의 기여율은 40%에 달함.
 - o 이들 품목 관련 중국의 수출 감소는 핵심 중간재인 반도체 수입 감소와 직결됨.
- 한편 2023년 중국의 대표적인 수출 증가 품목은 자동차(HS8703) 및 배터리(HS8507)이며, 수입 증가 품목은 금(HS7108) 및 철광(HS2601)임.

표 1. 2023년 중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비중 순위	수출 품목	규모 (억 달러)	수출 비중(%)	수출 감소 기여율(%)	수입 품목	규모 (억 달러)	수입 비중(%)	수입 감소 기여율(%)
1	유무선통신기기	2,200	6.4	10.1	전자집적회로(반도체)	3,518	13.7	43.1
2	자동차자료처리기기	1,501	4.4	20.7	원유	3,355	13.1	16.5
3	전자집적회로(반도체)	1,375	4.0	9.7	철광과 그 정광	1,326	5.2	-4.5
4	자동차	777	2.3	-18.1	금	922	3.6	-10.2
5	배터리(이차전지)	698	2.0	-6.8	천연가스	846	3.3	4.1
-	5대 품목	6,551	19.1	15.6	5대 품목	9,967	38.9	49.0

주: 품목은 HS코드 4단위 기준의 단일품목.
자료: 중국해관통계, KITA.

■ 세계 최대 수출국이자 2위 수입국인 중국이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13.1%에서 2022년 15.6%로 크게 상승한 반면, 세계 수입 내 비중은 11%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18~22년 세계 수출에서 중국 비중이 가장 큰 폭(2.5%p)으로 상승한 반면, ASEAN(0.9%p), 미국(0.2%p), 독일(-0.9%p), 일본(-0.6%p), EU(-0.4%p), 한국(-0.2%p) 등 주요국의 변화폭은 크지 않음.
- 최대 수입시장인 미국의 세계 수입 내 비중이 0.3%p 소폭 상승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해 EU(0.8%p), ASEAN(0.5%p), 한국(0.2%p), 중국(0.1%p) 및 일본(-0.2%p) 등 주요국의 비중 변화가 작은 편임.
- 팬데믹을 거치면서 중국은 수출 부문 위상이 강화되었고, ASEAN 및 미국은 수출입 비중 모두 소폭 확대된 반면, EU와 한국은 소폭이지만 수출 비중 하락과 수입 비중 상승의 특징이 나타남.

그림 3. 세계 수출에서 주요국·지역 비중



주: 전 세계의 2023년 무역통계가 발표되지 않음(2024. 2. 15.).
자료: UN Comtrade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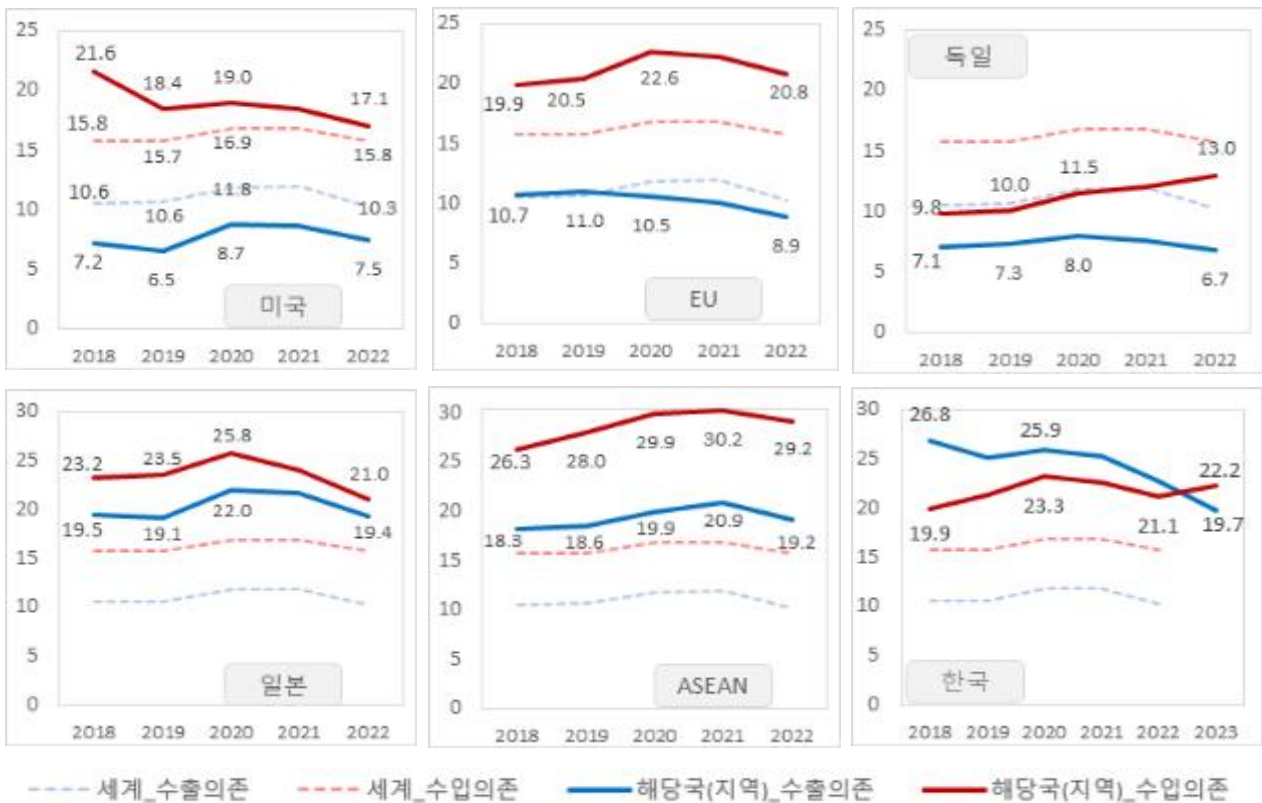
그림 4. 세계 수입에서 주요국·지역 비중



주: 전 세계의 2023년 무역통계가 발표되지 않음(2024. 2. 15.).
자료: UN Comtrade Database.

- 세계의 대중국 수출입 의존도가 팬데믹 기간 상승하였다가 2018년 수준으로 낮아지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입의존도 및 EU·한국의 수출의존도는 하락세가 뚜렷한 반면, 독일의 수입의존도 및 ASEAN의 수출입 의존도는 상승하는 추세임(그림 5 참고).
- 전 세계의 대중국 수출입 의존도가 팬데믹 초기인 2020~21년까지 상승하였다가 다시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수입의존도(15.8%)가 수출의존도(10.3%)보다 높은 구조가 유지되고 있음.
 - 세계의 대중국 수입의존도 변화: 2018년 15.8% → 2020년 16.9% → 2022년 15.8%
 - 세계의 대중국 수출의존도 변화: 2018년 10.6% → 2021년 11.9% → 2022년 10.3%
- 미국과 EU 등 다수의 서구 선진국들은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세계 평균보다 높고 수출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으며, 그중 미국은 미중 갈등이 시작된 2018년에 비해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4.5%p 하락함.
 - 다만 독일의 경우, 대중국 수출 및 수입 의존도 모두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몇 년간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빠르게 상승함(2018년 9.8%→2022년 13.0%).
- 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의 대표 국가인 한국, 일본, ASEAN의 대중국 수출 및 수입 의존도가 모두 세계 평균을 크게 상회하며, 특히 ASEAN의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상승하는 추세로 30%에 근접함.
- 한국은 주요국과 달리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수입의존도를 상회하는 구조를 유지하다가, 최근 수출의존도의 급감 및 수입의존도의 상승으로 2023년 처음으로 수입의존도(22.2%)가 수출의존도(19.7%)를 추월함.

그림 5. 세계 및 주요국·지역의 대중국 수출입 의존도 추이



주: 전 세계의 2023년 무역통계가 발표되지 않음(2024. 2. 15.). 한국의 2023년 통계는 KITA, 한국무역통계를 활용함.
 자료: UN Comtrade Database; KITA.

- 광물자원 부문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국이 세계 핵심광물(C)³⁾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기준 7.3%인 데 비해 핵심광물(C) 수입에서의 비중은 28.2%로 압도적으로 높으며, 최근 수입 비중 상승폭(5%p)도 가장 큼.
 - 세계 핵심광물(C)의 수입은 중국, EU, 미국, 일본 등 소수의 경제·산업 대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중국의 비중은 2018년 23.2%에서 2022년 28.2%로 크게 상승하여 핵심광물 수입에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짐.
 - 주요국의 수입 비중은 2018년 대비 하락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중국과의 격차가 확대됨.
 - 반면 핵심광물(C)을 수출하는 주요국은 ASEAN(7.7%), 중국(7.3%), EU(7.1%), 미국(6.3%) 등으로 소수국가에 대한 집중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며, 2018년 대비 비중 변화도 상대적으로 작음.
 - ASEAN과 중국의 비중 상승폭이 각각 2.6%p와 1.3%p로 높으며, 다른 국가들의 비중 변화는 크지 않음.

그림 6. 세계 핵심광물(C) 수출 중 주요국 비중



주: HS코드 6단위 기준 핵심광물(C) 수출.
자료: UN Comtrade Database.

그림 7. 세계 핵심광물(C) 수입 중 주요국 비중



주: HS코드 6단위 기준 핵심광물(C) 수입.
자료: UN Comtrade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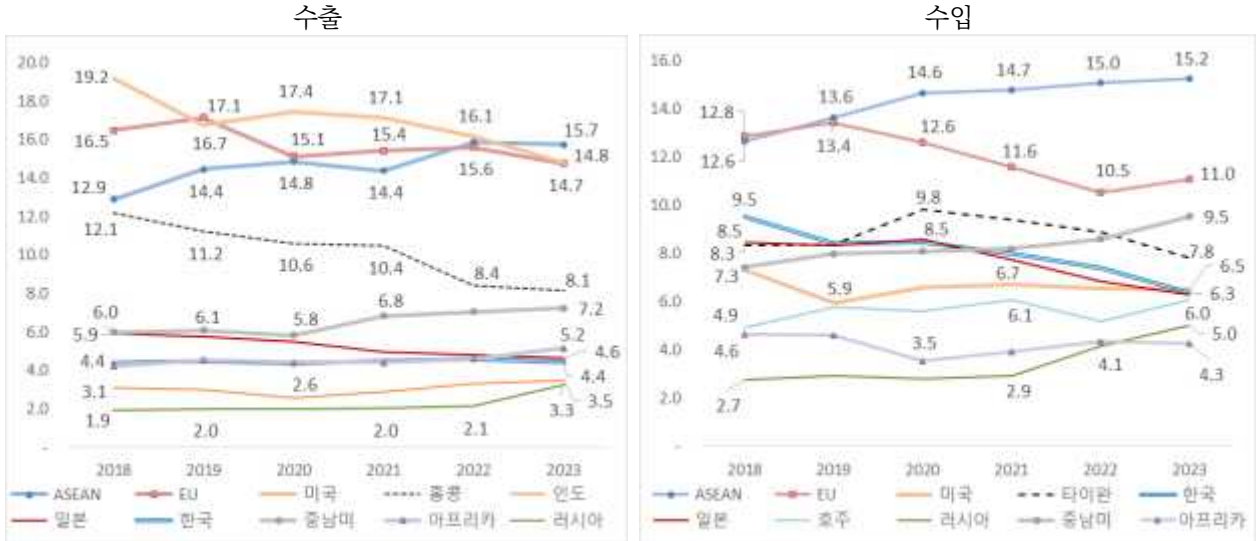
나. 주요 교역국 변화: 선진국 비중 축소, 개도국 비중 확대

- 2023년 중국의 최대 수출국가는 여전히 미국이지만 2018년 이후 미국 비중이 빠르게 축소된 반면, ASEAN 지역에 대한 수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23년에 ASEAN이 처음으로 최대 수출지역으로 부상함.
 - 중국의 대미국 수출액은 2023년 5,060억 달러로, 중국 총수출 대비 비중이 2018년 19.2%에서 2023년 14.8%까지 크게 하락함(주요국 중 가장 큰 하락폭).
 - 반면 최근 5년간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ASEAN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ASEAN 비중이 12.9%에서 15.7%로 상승하였고 2023년 미국, EU를 제치고 최대 수출지역이 됨.

3) 전략자원으로서 핵심광물을 분류하는 기준은 각 국가 및 시기에 따라 상이함. 본 연구에서는 분석 목적에 따라, 한국 분류(선정) 기준의 핵심광물을 핵심광물(K), 미국 기준의 핵심광물을 핵심광물(A), 중국 기준의 핵심광물을 핵심광물(C)로 표기함. 본 분석에서는 중국이 증시하는 핵심광물(C)을 기준으로 세계 수출입 중 중국의 비중 변화를 파악하고자 함. 참고로 핵심광물(K)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본고 각주 17을, 핵심광물(A)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각주 15를, 핵심광물(C)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붙임 1] 참고.

- 2018~23년 중국의 수출이 연평균 6.3% 성장하는 동안 주요 수출국·지역 중 미국, 홍콩, EU 및 일본에 대한 수출 비중은 하락한 반면 ASEAN, 중남미, 아프리카 등 개도국과 러시아의 비중은 확대됨.
 - 중국의 수출 상위 국가·지역 중 ASEAN을 제외한 미국, 홍콩, EU, 일본의 비중이 모두 하락하였으며, 하락폭은 미국(-4.4%p) 다음으로 홍콩(-4.0%p)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최근 5년간 대홍콩 수출의 연평균 성장률은 -1.6%로 주요국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
 - 독일, 네덜란드 등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대EU 수출 비중 역시 16.5%에서 14.7%로 하락
 - 한편 러시아의 비중은 2022년까지는 2% 정도로 유지되다가 2023년 3.3%로 확대되었으며, 중남미(6.0%→7.2%), 아프리카(4.4%→5.2%)를 비롯하여 인도(3.1%→3.5%), 호주(1.9%→2.2%)의 비중도 소폭 상승함.
 - 2023년 중국의 수출 감소세에도 대러시아 수출은 주요국 중 유일하게 증가하였으며, 증가율도 전년대비 46%에 달함.

그림 8. 중국의 주요 교역국·지역 변화 추이



자료: 중국해관통계, CEIC.

표 2. 2023년 중국의 10대 교역국

(단위: 억 달러, %)

순위	수출 대상	2023년 수출액, 비중	전년대비 증가율	CAGR ⁴⁾ (2018~23)	수입 대상	2023년 수입액, 비중	전년대비 증가율	CAGR (2018~23)
1	미국	5,060 14.8	-13.0	1.2	대만	2,004 7.8	-16.6	2.5
2	홍콩	2,787 8.1	-7.8	-1.6	미국	1,661 6.5	-6.5	1.6
3	일본	1,581 4.6	-8.7	1.5	한국	1,625 6.34	-18.8	-4.5
4	한국	1,510 4.4	-8.0	6.8	일본	1,608 6.3	-13.0	-2.3
5	베트남	1,418 4.1	-3.9	11.2	호주	1,550 6.0	10.2	8.5
6	인도	1,186 3.5	-0.2	9.1	러시아	1,276 5.0	13.7	16.8
7	러시아	1,114 3.3	46.0	18.4	브라질	1,224 4.8	12.6	9.7
8	독일	1,011 3.0	-13.0	5.5	독일	1,065 4.2	-4.4	0.1
9	네덜란드	1,007 2.9	-14.4	6.7	중국	1,059 4.0	-14.3	-6.2
10	말레이시아	900 2.6	-5.4	14.6	말레이시아	1,028 3.6	-6.5	10.2

자료: 중국해관통계, KITA.

- 중국의 최대 수입 대상은 2020~23년 연속 대만이었으나 그 비중이 하락하고 있으며, 최대 수입지역은 2019년 EU에서 ASEAN으로 전환된 이후 ASEAN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20년 대만이 한국을 제치고 중국의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였으며, 2020년 9.8%를 정점으로 점유율이 2023년 7.8%까지 축소됨.
 - 2013~19년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국이던 한국의 비중은 2015년 10.4%를 정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5년간 주요국 중 점유율 하락폭이 가장 큼(9.5%→6.3%).
 - 반면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ASEAN 비중은 2018년 12.6%에서 2023년 15.2%로 상승하여 EU 비중의 감소(12.8%→11.0%)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임.
- 2018~23년 중국의 수입이 연평균 3.7% 증가하는 동안 주요 수입국·지역 중 ASEAN, 중남미, 호주, 러시아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한국, 일본, EU, 미국, 대만 비중은 감소함.
 - 중국의 수입에서 러시아의 비중은 2.7~2.9%로 유지되다가 2022년 4.1%, 2023년 6.0%로 급증하였으며, 브라질 등 중남미 비중도 7.3%에서 9.5%로 확대됨.
 - 2023년 중국의 수입 감소세에도 러시아, 브라질, 호주로부터의 수입은 각각 전년대비13.7%, 12.6%, 10.2% 증가
 - 반면 중국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가장 크게 하락한 한국(3.2%p)을 비롯하여 일본(8.5%→6.3%), 미국(7.3%→6.5%) 등의 점유율 역시 하락함.
 - 중국의 2023년 전년대비 수입 증가율도 한국(-18.8%), 대만(-16.6%) 및 일본(-13%) 등이 최저 수준임.
 - 한편 최근 5년간 중국의 대중국 수입⁵⁾이 빠르게 감소하였으며(연평균 성장률 -6.2%), 이는 중국산 제품의 홍콩 경유 재수입이 감소한 데 기인함.
 - 해당 기간 중국 생산 제품의 홍콩 경유 재수입(중국→홍콩→중국)의 연평균 증가율은 -6.5%임.⁶⁾

다. 무역방식 및 기업유형별 특징: 일반무역 및 中민간기업 중심 구조 심화

- [무역방식] 최근 5년간 중국 수출입에서 일반무역 비중 확대 및 가공무역 비중 축소 추세가 지속되어, 2023년 내수용 수출입을 의미하는 일반무역 비중이 약 65%, 가공무역 비중이 약 18%를 기록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수출입 중 일반무역 비중이 가공무역 비중을 추월한 후 지속 상승함.
 - 특히 중국 수입에서 가공무역 비중이 2018년 22%에서 2023년 15.1%로 하락하여, 보세무역 등 기타 무역방식 비중(18.5%→19.8%)보다 더 낮은 수준이 됨.
 - 이처럼 중국 수입에서 비중이 계속 하락하는 가공무역 방식은 한국의 주된 대중국 수출방식으로, 2021년 기준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 가공무역 방식이 40%이고 일반무역 비중은 39% 수준임.

4)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은 해당 기간의 연평균(복합) 성장률을 의미함.

5) 중국의 대중국 수입은 ① 중국 국경지대 보세구역(Bonded Area)으로부터의 수입과 ②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홍콩 등을 경유하여 다시 중국으로 수입되는 것 등을 포함함.

6) CEIC 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분석.

그림 9. 중국 수출입의 무역방식별 비중 추이



자료: 중국해관통계, CEIC.

- [기업유형] 코로나19 영향과 미중 갈등이 지속되던 최근 5년간, 중국 수출입에서 외자기업의 비중 하락과 중국 민간기업의 비중 확대가 가속화되었으며, 국유기업은 수출보다 수입 부문에서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음.
- 2019년 이후 중국 무역에서 중국 민간기업의 비중이 외자기업을 추월하면서 위상이 강화되었으며, 외자기업 및 중국 민간기업 비중의 격차 확대는 특히 수출 부문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
 - 2018~23년 중국 수출에서 외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1.7%에서 28.6%로 축소된 반면 중국 민간기업 비중은 48%에서 63.5%로 크게 상승함.
- 중국 수입에서 최대 비중을 유지하던 외자기업의 비중이 빠르게 하락하고(43.6%→32.4%) 중국 민간기업의 비중이 확대되면서(30.7%→41.0%) 2021년에 비중이 역전됨.
- 2023년 기준 중국 국유기업은 수출(8%)보다 수입(26.6%) 부문에서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주요 수입 품목인 에너지·광물자원 등이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거래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중국 수입에서 국유기업의 비중은 코로나19 충격 초기 하락하였다가 공급망 및 전략자원 등 경제안보 이슈가 부상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상승하는 추세임.

그림 10. 중국 수출입의 기업유형별 비중 추이



자료: 중국해관통계, CEIC.

2. 중국 수출입 품목의 구조 변화와 특징

가. 가공단계7): 1차 상품 수입 비중 급증, 부품·부분품(중간재)의 흑자 전환

- [구조 변화] 2023년 중국의 1차 상품 수입 외 모든 가공단계의 수출입이 감소하였으며, 최근 5년간 중간재 중심의 수출 구조는 강화된 반면 수입 구조는 약화되었고 1차 상품의 수입 내 비중이 빠르게 증가함.
- 2023년 중국의 수출입 감소세(-5%)에도 1차 상품의 수입은 전년대비 0.7%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입증가율도 9.3%로 가장 높아, 전체 수입에서 1차 상품의 비중이 23.5%에서 30.6%로 급증함.
- 중국 수출 및 수입에서 중간재의 비중은 각각 46.6%와 50%로 여전히 가장 높으나, 지난 5년간 중간재 수출(연평균 7.6%)이 타 품목 대비 가장 빠르게 증가한 데 반해, 수입(연평균 2.1%)은 증가세가 둔화됨.
 - 2023년 대내외 수요 부진으로 중간재 수출(-8.0%) 및 수입(-10.2%)이 모두 감소하였으나, 특히 자본재 부품·부분품(-15.5%)의 수입 감소세가 두드러짐(부표 1 참고).
- 최근 5년간 중국의 수출 구조는 중간재 중심 구조가 강화되는 반면, 수입 구조는 중간재 중심 구조가 약화되면서 1차 상품 및 소비자 비중이 확대되는 것이 특징적임(부표 1 참고).
 - 중간재 수출은 산업용 원자재 중심의 비중 증가(20.9%→23.0%)가 뚜렷하며, 중간재 수입은 자본재 부품·부분품(연평균 성장률 0.8%)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됨.
 - 1차 상품 수입은 광산물(연평균 12.5%)을 중심으로, 소비자 수입은 음식료품(연평균 11.1%) 중심으로 증가
- 한편 소비자 수출의 둔화에도 승용차 수출이 2023년 77.8%를 기록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57% 성장하며 약진함.

표 3. 2023년 중국의 가공단계별 수출입 규모 및 증가율

(단위: 억 달러, %)

구분	수출				수입			
	규모	비중	전년대비 증가율	CAGR (2018~23)	규모	비중	전년대비 증가율	CAGR (2018~23)
1차 상품	209	0.6	-12.2	5.0	7,842	30.6	0.7	9.3
소비자	11,929	34.9	-3.9	5.2	2,568	10.0	-4.2	6.2
자본재	5,477	16.0	-2.8	4.8	2,299	9.0	-1.1	-3.5
중간재	15,950	46.6	-8.0	7.6	12,817	50.0	-10.2	2.1

주: 가공단계 분류 기준은 BEC 4.

자료: 중국해관통계, KITA.

- [가공단계 무역수지] 중국의 가공단계별 무역수지는 2021년 중간재의 흑자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2023년 까지 1차 상품을 제외한 모든 가공단계(대분류)에서 흑자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 가공단계별 중국의 무역수지는 최근 5년간 소비자, 자본재, 중간재 순으로 컸으며, 특히 2021년 중간재의

7) 본 연구의 가공단계 분석은 BEC 4 분류 기준을 적용.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이후 2022~23년 자본재의 흑자 규모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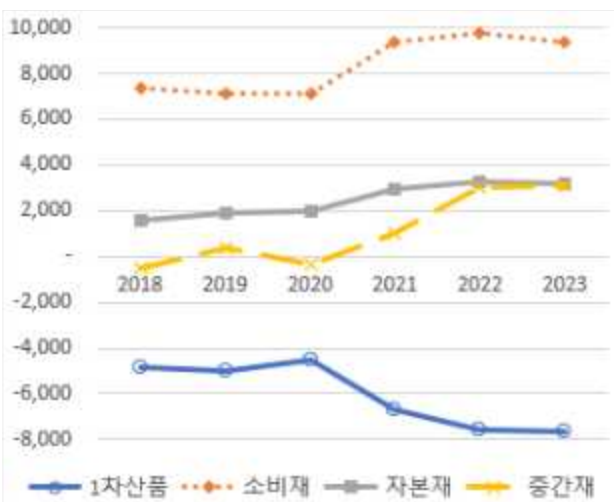
- 한편 2020년을 기점으로 1차 상품의 적자폭과 중간재·소비재·자본재의 흑자폭이 대조적으로 확대됨.
 - 1차 상품의 적자는 에너지와 광물의 수입 확대에 기인하며, 2023년에는 원유(HS 270900, -3,347억 달러)와 철광석(HS 260111, -1,270억 달러)의 적자가 두드러짐.
 - 소비재의 흑자는 반내구소비재와 내구소비재의 수출 호조에 기인하며, 2023년 특히 스마트폰(HS 851713, 1,356억 달러)과 태블릿 PC(HS 847130, 976억 달러) 등 전자제품의 흑자가 두드러짐.
 - 또한 소비재 중 승용차의 무역수지가 2023년 흑자(296억 달러)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전기차(HS 870380, 319억 달러) 무역수지가 2020년 흑자로 전환된 이후 최근 3년간 연평균 271%씩 증가한 데 기인함.

■ [중간재 무역수지] 중국의 중간재 무역수지 흑자는 주로 산업용 원자재, 운송장비 부품, 자본재 부품·부분품의 흑자에 기인하며, 특히 자본재 부품·부분품이 2023년에 흑자로 전환됨.

- 중국의 중간재 무역수지가 2021년 흑자로 전환되며 빠르게 증가한 것은 산업용 원자재의 흑자폭 상승에 기인하며, 2023년 자본재 부품·부분품이 흑자로 전환되면서 산업용 원자재의 흑자 감소분을 상쇄하여 전년도 수준의 흑자를 유지함.
- 최근 5년간 산업용 원자재, 운송장비 부품, 자본재 부품·부분품의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크게 웃돌며(5.9%p, 10.0%p, 5.8%p) 중간재의 흑자 확대에 기여함.
- 2023년 산업용 원자재 중 주요 흑자 품목은 리튬이온 배터리(HS 850760, 626억 달러), 기타 철강 구조물 및 부품(HS 730890, 161억 달러) 등이며, 자본재 부품·부분품 중에서는 태양전지(HS 854143, 393억 달러), 스마트폰 부품(HS 851779, 240억 달러), 액정 디스플레이(HS 852491, 212억 달러) 등이 대표적임.

그림 11. 중국의 가공단계별 무역수지 변화

(단위: 억 달러)



주: 가공단계 분류 기준은 BEC 4.
자료: 중국해관통계, KITA

그림 12. 중국의 중간재 하위분류별 무역수지 변화

(단위: 억 달러)



주: 가공단계 분류 기준은 BEC 4.
자료: 중국해관통계, KITA

나. 업종8): 자동차 수출 약진, 농업·에너지 관련 적자 확대

- [구조 변화] 최근 5년간 컴퓨터·통신설비 제조업 중심의 수출입 구조가 약화된 반면 수출에서는 전기기계 및 자동차가, 수입에서는 석유·천연가스(광업) 및 농·부식품 가공품 비중이 비교적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중국 수출입에서 컴퓨터·통신설비가 2023년 23.8% 및 21.8%로 비중이 가장 높으나, 최근 5년간 수출입 증가율(연평균 2.2% 및 0.4%)이 저조하여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함.
- 반면 중국의 수출 상위 5대 업종 중 전기기계 및 자동차 제조업의 수출이 지난 5년간 연평균 10.7% 및 21.0%씩 성장하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함(1.9%p 및 2.3%p).
- 같은 기간 중국의 수입 상위 5대 업종 중 석유·천연가스(광업), 농·부식품 가공품 및 비철금속 제조업의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여 수입 비중이 확대됨(2.8%p, 2.2%p, 1.5%p).
- 한편 2018년 중국의 3대 수입 업종이던 화학원료·화학제품은 최근 5년간 수입 증가율이 0.9%로 둔화되어 비중 감소(-1.1%p) 및 순위 하락이 나타난 반면, 수출 증가율은 8.4%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표 4. 2023년 중국 상위 5대 업종의 수출입 규모 및 증가율

(단위: 억 달러, %)

수출					수입				
상위 업종	규모	비중	전년대비 증가율	CAGR (2018~23)	상위 업종	규모	비중	전년대비 증가율	CAGR (2018~23)
컴퓨터·통신·기타전자설비	8,135	23.8	-0.1	2.2	컴퓨터·통신·기타전자설비	5,581	21.8	-0.1	0.4
전기기계·기구	3,704	10.8	0.0	10.7	석유·천연가스(광업)	4,202	16.4	-0.1	7.7
화학원료·화학제품	2,036	6.0	-0.2	8.4	비철금속	1,992	7.8	0.0	8.2
통용설비	1,738	5.1	0.0	6.5	화학원료·화학제품	1,877	7.3	-0.1	0.9
자동차	1,714	5.0	0.3	21.0	농·부식품 가공품	1,692	6.6	0.0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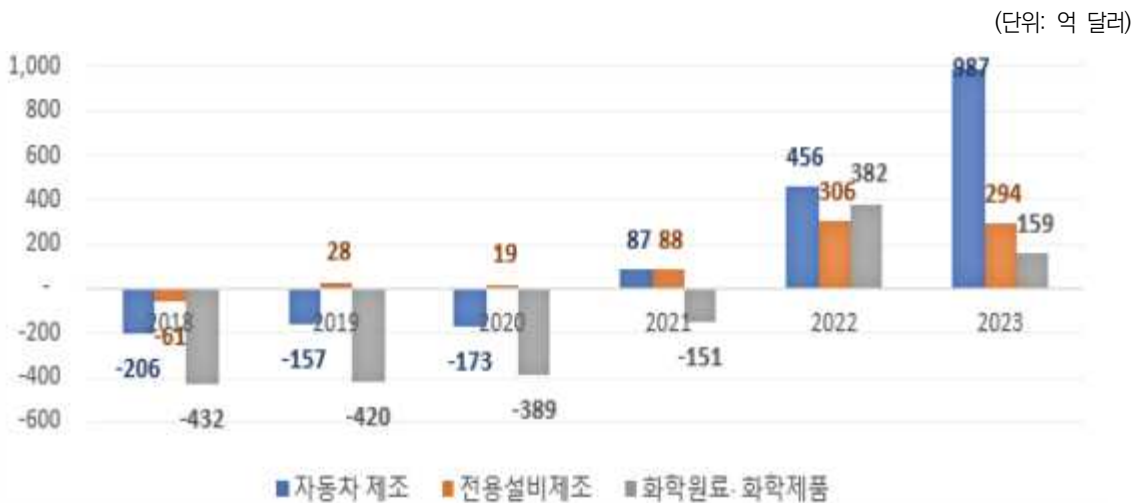
주: 업종 분류는 중국의 '2017 국민경제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
자료: 중국해관통계, KITA

- [업종별 무역수지] 중국의 대표 흑자산업인 전기기계 및 컴퓨터·통신설비 이외에 화학원료·화학제품, 자동차 제조 등 다수 업종이 최근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반면 농업 및 에너지 관련 적자는 확대됨.
- 최근 5년간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가 연평균 18.6%씩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기기계 및 컴퓨터·통신설비의 흑자 비중이 96%에서 66%로 하락하면서 중국의 흑자 품목이 다원화되고 있음.
 - 해당 기간 전기기계 및 컴퓨터·통신설비의 흑자 규모는 연평균 11% 성장함.

8) 본 연구의 업종 분류는 중국의 '2017 국민경제산업분류'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총 36개 산업으로 구분함(부표 2 참고). 농업 1개(농산물), 광업 5개(석탄, 석유·천연가스, 철광, 비철금속광, 비금속광물), 제조업 29개, 전력으로 구성되며, 본고에서는 농업, 광업은 별도 표기하고 제조업 표기는 생략함.

- 2023년 흑자 규모가 천억 달러 이상인 업종은 전기기계(3,133억 달러), 컴퓨터·통신설비(2,554억 달러), 의류·의류장식품(1,529억 달러), 금속제품(1,323억 달러), 통용설비(1,179억 달러), 고무·플라스틱(1,094억 달러)의 6개 업종임.
- 화학원료·화학제품은 2022년, 자동차는 2021년, 전용설비는 2019년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됨.
- 이 중 화학원료·화학제품 및 전용설비는 2023년 흑자가 감소하였으나, 자동차의 흑자 규모가 빠르게 상승하여 2023년 기준 천억 달러에 육박한 수준(987억 달러)이 됨.
- 자동차(제조업) 중 소비재인 승용차의 무역수지는 2018년 417억 달러 적자에서 2023년 296억 달러 흑자로 전환됨.
- 그러나 농업, 석탄, 석유, 농·부식품 가공품 등은 최근 5년간 적자폭이 확대되었으며, 특히 농업 및 농·부식품 가공품은 사료용 옥수수(HS 100590), 기타 대두(HS 120190)의 수입 증가로 적자가 확대됨.

그림 13. 2018~23년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 전환 업종



자료: 중국해관통계, KITA

- [반도체·원유 수입 제외] 2023년 중국의 주요 수입 품목(100억 달러 이상) 중 원자재 및 의약품 수입이 빠르게 증가한 반면 전기기계, 자동차, 컴퓨터·통신설비 수입이 비교적 빠르게 감소함(표 5 참고).
- 중국의 최대 수입 품목인 반도체(HS 8542)와 원유(HS 2709)를 제외하면⁹⁾ 2023년 중국의 수입 증가율은 전년대비 -3.2%로, 반도체·원유가 포함된 전체 수입 증가율(-5.5%)보다 높음.
- 특히 비금속광물 및 석유·석탄 가공업, 석탄(광업), 의약품 및 농산물(농업)의 수입 증가율이 높음.
- 반면 수입 감소폭이 큰 업종은 △ 목재가공 △ 전기기계 △ 자동차 △ 컴퓨터·통신설비 등이며, 특히 중국 최대 수입 업종인 컴퓨터·통신설비의 수입이 전년대비 12.4%, 최근 5년간 2.6%씩 감소함.
- 이는 [표 4]의 반도체가 포함된 컴퓨터·통신설비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입성장률이 0.4%인 것과 대비됨.

9) 반도체와 원유는 단일품목(HS코드 4단위 기준)으로, 2023년 중국 전체 수입의 약 27%를 점유함. 본고의 [표 1] 참고.

표 5. 중국의 2023년 수입 증가율 상위 및 하위 5개 업종 비교(반도체와 원유 제외)

(단위: 억 달러, %)

수입 증가율 상위 업종					수입 증가율 하위 업종				
업종	2023 수입액	CAGR ('18~'23)	2023 증가율	주요 품목 (수입액)	업종	2023 수입액	CAGR ('18~'23)	2023 증가율	주요 품목 (수입액)
비금속 광물	215	25.1	39.3	기타 광물 (HS253090, 60억)	목재가공	179	-6.4	-19.0	목재 칩·삭편 (HS 440122, 28억)
석탄 (광업)	530	16.4	24.5	유연탄 (HS270112, 162억)	전기기계	571	-3.7	-13.1	세라믹 축전기 (HS853224, 63억)
석유·석탄가공	406	3.3	11.2	기타 석유조제품 (HS271019, 191억)	자동차	727	-3.5	-12.8	자동차 (HS870323, 332억), 기어박스·부품 (HS870840, 79억)
의약품	457	9.1	7.8	기타 (HS300490, 178억)	컴퓨터·통신설비	2,063	-2.6	-12.4	OLED (HS852492, 232억)
농산물 (농업)	231	26.8	7.3	사료용 옥수수 (HS100590, 90억)	고무·플라스틱	251	-1.9	-12.2	플라스틱제 기계부품 (HS392690, 35억)

주: 1) 반도체와 원유를 제외한 수입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

2) 수입 규모 100억 달러 이상인 업종 중 2023년 수입 증가율 상위 5위 및 하위 5위 업종을 순서대로 정리.

자료: 중국해관통계, KITA

다. 핵심광물(C)¹⁰): 전략적 수입 및 적자 확대

■ 세계 광물생산에서 중국 비중¹¹)이 과반인 희토류·바나듐에 대한 중국의 수입이 최근 급증하였고, 수입 비중이 가장 높은 구리·니켈에서 적자가 확대되면서 2023년 핵심광물(C) 적자가 1,800억 달러로 증대됨.

- 2023년 중국의 핵심광물(C) 수출은 급감한(-12.1%) 반면 수입은 증가하였으며(2.7%),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입증가율(13.8%)도 수출증가율(8.6%)을 크게 상회하며 무역적자(883억 달러→1,800억 달러)가 급증함.
- 세계 희토류 생산에서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중국의 2023년 및 최근 5년간 희토류 수입 증가율이 각각 74.5% 및 60.4%에 달하였으며, 특히 세계 희토류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37.7%에서 2022년 69.9%로 급증함(표 6, 부표 3 참고).
 - 또한 중국의 생산 비중이 60~70%를 차지하는 바나듐과 텅스텐 역시 수입 증가세와 수출 감소세가 지속됨.
- 세계 생산에서 중국의 비중이 10%대 이하인 구리와 니켈 수입액이 가장 많으며(핵심광물(C) 수입의 69%) 적자 역시 2023년 1,472억 달러로, 핵심광물(C) 적자의 82%를 차지함.
- 중국 내에 부족한 광물인 구리, 니켈, 크롬 등의 수입 증가뿐만 아니라, 공급망 우위가 높은 희토류 등에 대한 수입도 급증하고 있어(희토류 수출은 감소세) 핵심광물(C)에 대한 전략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임.

10) 본 절에서의 핵심광물(C)은 중국 기준으로 구분된 핵심광물을 의미하며, 중국정부가 2016년과 2018년에 공식 발표한 전략적 핵심광물을 중심으로, 중국 기준의 핵심광물 26종을 선정하여 분석 대상으로 함. 세부 품목 등은 [글상자 1] 참고.

11) 2022년 기준 세계 주요 광물 생산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70% 이상] 갈륨, 마그네슘, 비스무트, 텅스텐, [60% 이상] 희토류, 바나듐, 형석, 흑연, [50% 이상] 인듐, 안티모니, 텔루륨, [25% 이하] 보크사이트, 주석, 코발트, 니켈, 탄탈륨, 망간, 리튬 등.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24.

- 한편 중국이 세계 생산에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흑연(인조흑연 포함)은 핵심광물(C) 중 중국의 최대 흑자품목이며, 세계 흑연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이 2018년 약 34%에서 2022년 약 52%로 급증함(부표 3 참고).

표 6. 2023년 중국의 핵심광물(C) 수출입 규모 및 증가율

(단위: 백만 달러, %)

광물	수출			수입			무역수지	
	2023년 규모	전년대비 증가율	CAGR (2018~23)	2023년 규모	전년대비 증가율	CAGR (2018~23)	2018년 규모	2023년 규모
핵심광물(C)	44,794	-12.1	8.6	224,816	2.7	13.8	-88,341	-180,022
알루미늄	20,081	-26.4	2.7	21,148	10.2	15.4	7,259	-1,066
안티모니	447	-21.7	6.1	163	17.8	-6.5	105	284
코발트	300	-45.6	-20.7	2,780	-55.0	-8.7	-3,413	-2,480
구리	5,747	1.3	9.1	122,826	-1.1	9.4	-74,765	-117,079
크롬	350	-15.9	5.3	9,030	35.0	10.2	-5,292	-8,680
흑연	2,096	-1.1	17.0	414	-21.2	1.2	565	1,682
*인조흑연	1,809	4.4	24.4	355	-12.3	1.2	271	1,454
니켈	2,523	7.6	35.6	32,600	-2.3	25.1	-10,097	-30,078
리튬	6,735	46.7	64.3	6,512	-4.1	76.3	181	223
몰리브덴	1,434	40.0	24.7	1,344	63.3	38.5	211	89
지르코늄	83	4.0	7.5	1,346	-5.9	6.4	-928	-1,263
백금족	104	41.6	-7.8	6,399	-16.4	14.9	-3,044	-6,295
희토류	1,124	-22.2	8.6	17,892	74.5	60.4	-942	-16,768
탄탈륨	213	-17.5	0.6	92	-30.2	1.2	120	121
텅스텐	349	-18.4	-5.0	174	17.1	9.0	337	175
바나듐	228	-20.5	-17.4	94	95.7	134.0	592	133
셀레늄	107	33.4	18.9	65	-6.8	-7.2	-49	43
갈륨, 게르마늄, 인듐, 니오븀, 레늄	553	15.9	10.1	314	215.4	22.4	228	239
기타	2,287	-28.5	7.3	1,618	26.0	9.0	561	669

자료: UN Comtrade Database.

글상자 1. 중국의 전략적 핵심광물 및 분석 대상

- 중국정부는 2016년과 2018년에 전략적 (핵심)광물 목록을 발표하였으며, 전략적 광물자원(战略性矿产资源) 보호 및 안전 보장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광물자원법(矿产资源法)」 개정을 추진 중임.
 - ▶ 「국가 광물자원 계획(2016~2020)」에서 처음으로 24종의 광물을 전략적 (핵심)광물 목록에 포함시킴: [에너지광물 6종] 석유, 천연가스, 셰일가스, 석탄, 석탄층가스, 우라늄, [금속광물 14종] 철, 크롬, 구리, 알루미늄, 금, 니켈, 텅스텐, 주석, 몰리브덴, 안티모니, 코발트, 리튬, 희토류, 지르코늄, [비금속광물 4종] 인, 갈륨, 흑연, 형석
 - ▶ 「신시대 중국의 전략적 핵심광물 목록 결정」에서는 21종의 자원을 전략적 핵심광물로 지정함 : 크롬, 구리, 코발트, 리튬, 베릴륨, 니오븀, 탄탈륨, 지르코늄, 셀레늄, 레늄, 바나듐, 텅스텐, 안티모니, 갈륨, 게르마늄, 인듐, 희토류, 흑연, 석유, 우라늄, 천연가스
- 최근 경제안보 정세, 중국의 산업수요 및 자원보유 상황 등을 고려하여 중국 내 연구에서도 전략광물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위 내용을 고려하여 비에너지광물 26종을 선정하여 중국의 핵심광물(C) 분석에 적용함.
 - 알루미늄, 안티모니, 코발트, 구리, 크롬, 흑연, 니켈, 리튬, 몰리브덴, 지르코늄, 백금족, 희토류, 탄탈륨, 텅스텐, 바나듐, 갈륨, 셀레늄, 게르마늄, 인듐, 니오븀, 베릴륨, 레늄 등

자료: 「全国矿产资源规划(2016~2020年)」(2016. 11.); 「新时代中国战略性关键矿产目录厘定」(2018); 李建武, 李天骄, 贾宏翔, 王安建(2023. 3.), 「中国战略性关键矿产目录厘定」, 『地球学报』, 2023年 3月, 第44卷 第2期; 五矿证券(2024. 3. 1.), 「大变局下的资源安全: 中国战略性(关键)矿产如何涅槃重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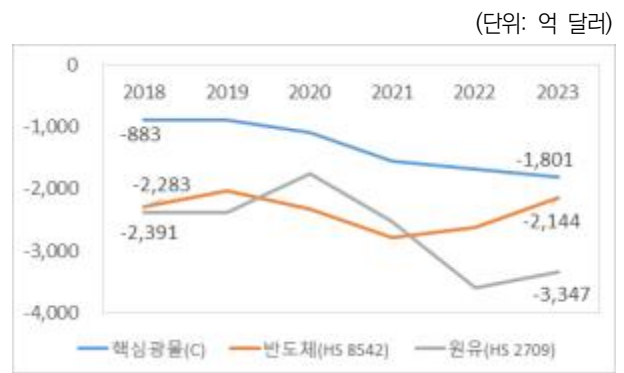
- 세계적인 광물자원 공급국이자 수요국인 중국에 있어 핵심광물(C)은 반도체, 원유와 함께 중국의 3대 수입 품목인 동시에 3대 무역적자 품목으로 자리매김함.
- 2018~23년 기간 중국의 최대 무역적자 품목인 반도체(HS8542)와 원유(HS2709)의 적자가 최근 2~3년 감소하였으나, 핵심광물(C) 적자는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로 반도체 적자에 근접하고 있음.

그림 14. 3대 품목의 중국 수입 내 비중



자료: 중국해관통계, KI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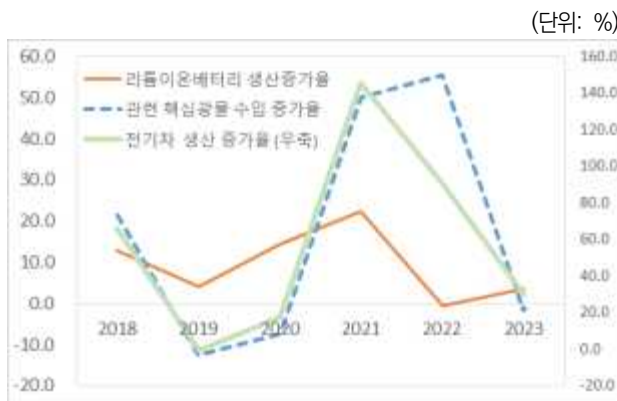
그림 15. 중국의 3대 무역적자 품목의 무역수지



자료: 중국해관통계, KITA.

- 코로나19 영향과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지속됨에 따라 반도체, 배터리 등 관련 산업이 영향을 받으면서 중국의 핵심광물(C) 수출입 역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음.
- 지난 5년간 중국의 배터리 및 전기차 생산 확대로 니켈(연평균 +25.1%), 리튬(연평균 +76.3%), 희토류(연평균 +60.4%) 등 관련 소재 광물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23년에는 배터리 공급 과잉에 따른 생산 조정으로 관련 광물의 수입 증가율(-1.5%)이 마이너스로 전환됨.
-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강화 등에 따라 중국의 반도체 생산 증가율이 둔화되면서(2022년 -9.8%, 2023년 +6.9%) 관련 광물 소재의 수입 증가율도 둔화되다가 2023년에는 마이너스 증가율(-23.9%)을 기록함.

그림 16. 중국 전기차 및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 증가율과 관련 핵심광물 수입 증가율 추이



자료: KITA, CEIC.

그림 17. 중국 반도체 생산 증가율과 관련 핵심광물 수입 증가율



자료: KITA, CEIC.

3. 한·중 무역관계 변화와 특징

가. 한·중 무역 및 상호의존도: 대중무역 적자 전환, 수입의존도의 비대칭적 확대

- 2023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19.9% 급감한 1,248억 달러에 그친 반면, 수입은 7.6% 감소하면서 대중국 무역수지가 1993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180억 달러)로 전환됨.
-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중국의 대외무역이 감소했던 2019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이 -16%로 급락하였으며, 이후 2021년까지 회복세를 보였으나 2023년 수출 증가율은 2019년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짐.
- 최근 5년간 대중국 연평균 수입증가율은 6.1%로 수출증가율(-5.1%)을 크게 상회하여 대중국 무역수지가 꾸준히 하락하면서 2023년 -180억 달러로, 연간 기준 첫 적자를 기록함.
- 특히 한국의 대표적인 대중국 무역흑자 품목인 반도체(HS8542)를 제외할 경우, 대중국 무역수지는 2021년에 이미 적자로 전환됨.

그림 18.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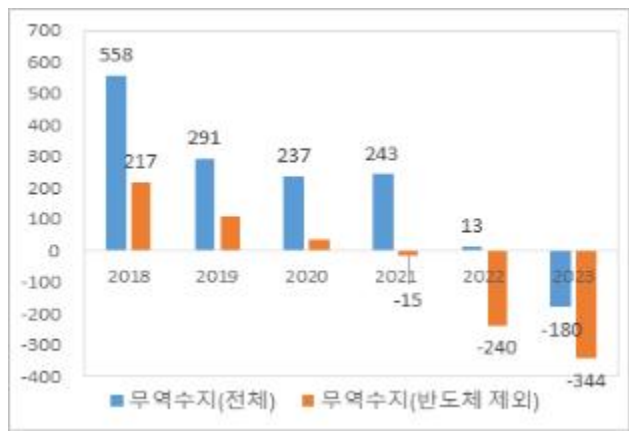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



자료: 한국무역통계, KITA.

그림 19.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변화

(단위: 억 달러)



자료: 한국무역통계, KITA.

- 2023년 한국의 대중국 수입의존도(22.2%)가 처음으로 수출의존도(19.7%)를 상회하며 증가 추세인 반면, 중국의 대한국 수입의존도(6.3%)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한·중 간 상호 수입의존도 격차가 확대됨.
- 한국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대중국 수출의존도)은 상당 기간 25%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2년 22.8%, 2023년 19.7%로 하락하여 팬데믹 이전인 2018년 대비 7.1%p 감소함.
 - 한편 2018년 이후 한국의 수출에서 미국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여 2023년 18.3%를 기록하였으며, 2024년 2월에는 월 단위 기준 18.7%로 중국 비중(18.4%)을 넘어섬.¹²⁾
- 반면 한국의 대중국 수입의존도는 추세적으로 상승하며(2018년 대비 +2.3%p) 2023년 수출의존도를 넘어섬.

12) 2024년 2월 기준 한국의 수출은 524억 1천만 달러이며, 그중 대미국 수출은 98억 달러로, 대중국 수출(96억 5천만 달러)을 상회하며 1위를 기록함.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4. 3. 1.), 「2024년 2월 수출입 동향」.

- 중국의 대한국 수입의존도는 2015년 10.9%를 정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2018년 대비 3.4%p 하락함.

그림 20. 한국과 중국의 상호 수출입 의존도 변화 추이

(단위: %)



자료: 한국무역통계, 중국해관통계, KITA.

그림 21. 한국의 주요국에 대한 수출의존도

(단위: %)



자료: 한국무역통계, KITA.

나. 가공단계 및 업종별 대중국 무역: 중간재 및 전자·화학 흑자 급감

■ 최근 5년간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를 주도해온 중간재의 흑자 규모가 크게 하락하였으며, 자본재는 2020년에, 반도체를 제외한 중간재는 2023년에 대중국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됨(그림 22 참고).

- 2018~23년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증가율은 연평균 -4.3%인 데 반해 수입증가율은 8.1%로, 중간재 무역수지가 2018년 657억 달러에서 2023년 89억 달러로 급감함.
 - 중간재 중 대중국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품목(시점)은 배터리(2018년), 자동차 부품(2018년), 화학섬유(2020년), 기초화학원료(2022년), 플라스틱 제품(2023년) 등임.
 - 또한 반도체를 제외한 중간재의 대중국 무역수지가 2023년 -75억 달러로,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함.
- 같은 기간 대중국 자본재 수입증가율이 0.7%인 반면 수출증가율은 -15.2%로, 자본재 무역수지가 2020년 적자로 전환된 이후 확대되는 추세임(2023년 -69억 달러).

표 7. 2023년 한국의 가공단계별 대중국 수출입 규모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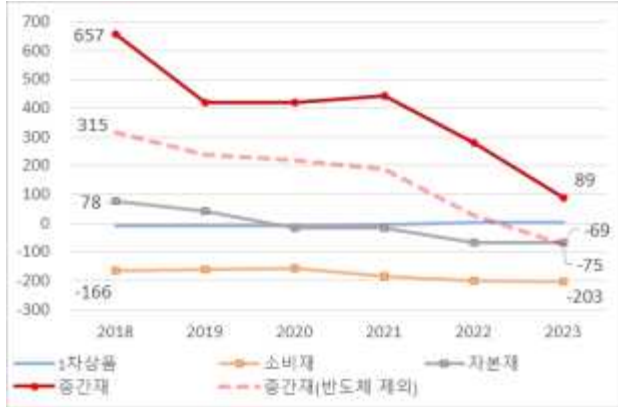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

구분	수출				수입			
	규모	비중	전년대비 증가율	CAGR (2018~23)	규모	비중	전년대비 증가율	CAGR (2018~23)
1차 상품	19	1.3	-6.7	28.6	16	1.1	-16.3	-0.1
소비재	74	5.2	-8.6	3.9	276	19.3	-1.8	4.0
자본재	110	8.9	-20.6	-15.2	179	12.5	-13.6	0.7
중간재	1,045	84.6	-20.7	-4.3	957	67.0	-7.8	8.1
전체	1,248	100.0	-19.9	-5.1	1,429	100.0	-7.6	6.1

주: 가공단계 분류 기준은 BEC 4.
자료: 중국해관통계, KITA.

그림 22. 가공단계별 대중국 무역수지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중국해관통계, KITA.

그림 23. 대중국 중간재 무역수지 적자 전환 품목

(단위: 억 달러)



자료: 중국해관통계, KITA.

■ 대표적인 대중국 무역흑자 업종인 컴퓨터·통신설비, 화학원료·화학제품의 흑자가 최근 5년간 빠르게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전기기계의 적자가 급증하였으며, 고무·플라스틱 및 화학섬유 등이 적자로 전환됨.

- 한국의 업종별 대중국 교역구조는 컴퓨터·통신설비, 화학원료·화학제품, 전기기계에 집중된 구조이며(수출의 69.2%, 수입의 56.4%), 최근 5년간 이들 업종의 수출은 모두 감소세, 수입은 모두 증가세였음.
- 컴퓨터·통신설비 및 화학원료·화학제품의 2023년 대중국 흑자는 2018년 대비 260억 달러 및 117억 달러 감소했으며, 전기기계의 대중국 적자는 109억 달러 증가함(전체 대중국적자는 180억 달러).
- 지난 5년간 통용설비(2019년), 화학섬유(2021년), 석유·천연가스(2021년), 고무·플라스틱(2022년) 등의 대중국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됨.
- 한편 대중국 무역흑자가 증가한 품목은 비철금속광(광업), 비철금속 제조 등으로 증가분은 총 10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며, 주로 최근 2~3년간 구리광(HS 260300, 13억 달러), 은광(HS 261610, 0.3억 달러)의 수출 증가에 기인함.

표 8. 2023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상위 5대 업종의 교역 규모 및 증가율

(단위: 억 달러, %)

수출					수입				
상위 업종	규모	비중	전년대비 증가율	CAGR (2018~23)	상위 업종	규모	비중	전년대비 증가율	CAGR (2018~23)
컴퓨터·통신·기타전자설비	518.2	41.5	-28.4%	-7.2%	컴퓨터·통신·기타전자설비	389.9	27.3	-20.6%	1.3%
화학원료·화학제품	293.8	23.5	-15.7%	-0.2%	화학원료·화학제품	237.5	16.6	-5.9%	13.9%
전기기계·기구	52.8	4.2	-15.1%	-4.3%	전기기계·기구	179.1	12.5	15.8%	16.8%
전용설비	45.2	3.6	-20.6%	-12.1%	철강	70.6	4.9	-2.0%	2.4%
석탄·석유가공	41.2	3.3	-10.4%	-15.2%	통용설비	58.4	4.1	-5.4%	6.1%

주: 업종 분류는 중국의 '2017 국민경제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
자료: 중국해관통계, KITA.

그림 24. 주요 업종의 대중국 무역수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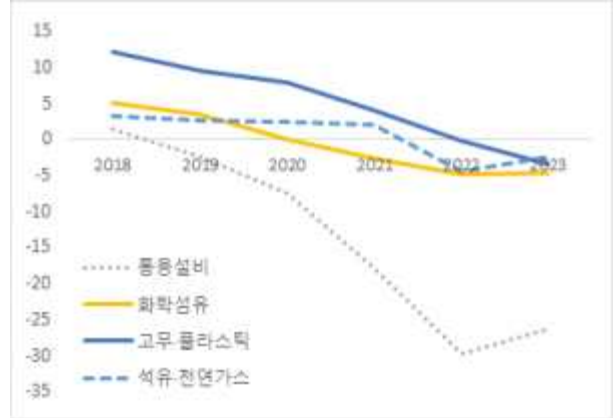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자료: 중국해관통계, KITA.

그림 25.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전환 업종

(단위: 억 달러)



자료: 중국해관통계, KITA.

다. 대중무역 적자 전환 요인: ICT 경기 및 구조 요인 복합

-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전환은 글로벌 ICT 경기 악화로 중국의 ICT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동 분야 대중국 수출이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으로, 2023년 대중국 무역흑자 감소의 54.4%가 ICT에서 발생함.
- 중국의 ICT 품목 수입은 2018년 5,234억 달러에서 2021년 6,821억 달러로 증가한 이후 2023년까지 2년간 연평균 8.8% 감소하였으며, 중국의 대한민국 ICT 수입도 연평균 11.4% 감소함.
- 중국 ICT 산업의 수요 위축으로 2023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급감(-19.9%)하면서 ICT 분야의 대중국 무역수지도 2022년 207억 달러에서 2023년에는 102억 달러로 감소함.

그림 26. 한국의 대중국 ICT 제품 무역수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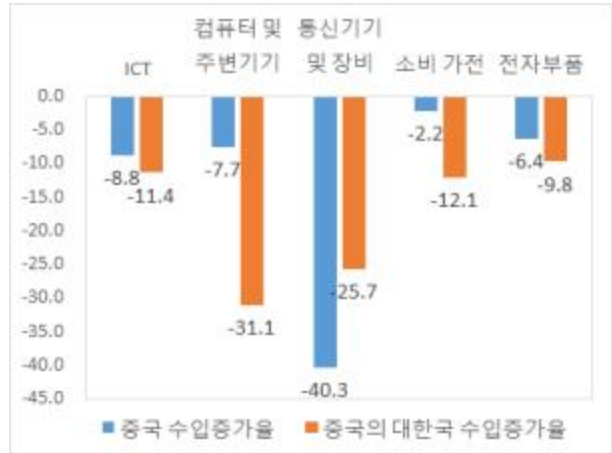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자료: 한국무역통계, KITA.

그림 27. 중국의 ICT 품목 수입증가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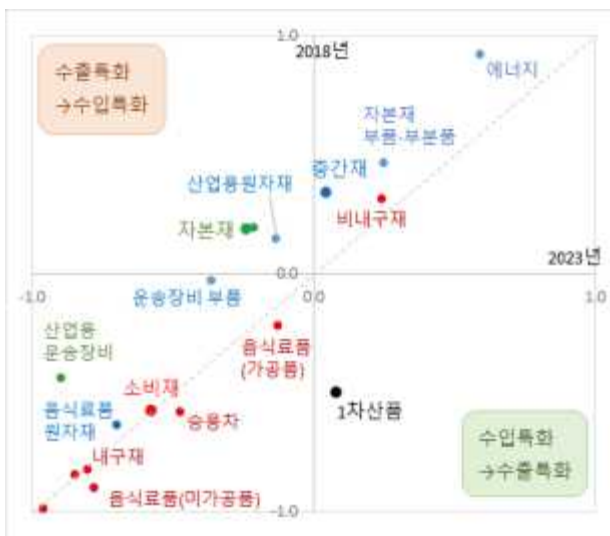


주 : 2021~23년 2년간의 연평균 증가율 기준.
자료: 중국해관통계, KITA.

■ 한국이 대중국 무역에서 수출특화를 유지해온 품목들이 적어지고 수입특화로 전환되는 품목들이 증가하는 등 우리의 대중국 수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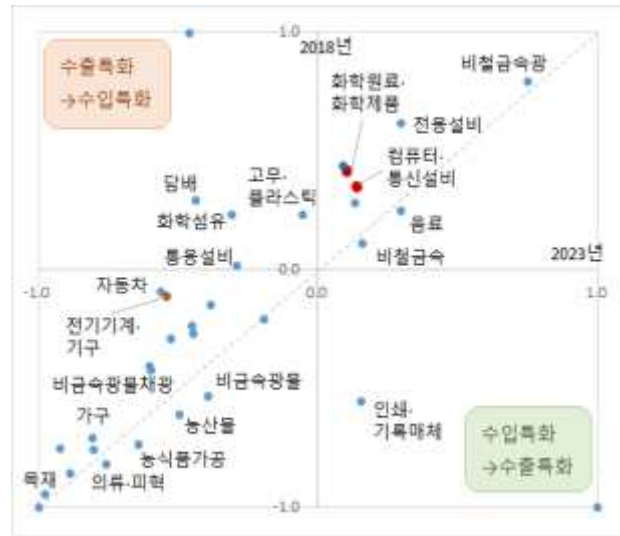
- 상대적인 수출경쟁력을 보여주는 무역특화지수를 통해 대중국 무역구조를 살펴보면, 자본재와 산업용원자재(중간재)가 수출특화에서 수입특화로 전환되었으며, 대다수 중간재 및 자본재의 수입특화도가 증대되고 있음.
- 업종별로는 대부분 업종에서 대중국 수입이 수출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화학섬유, 고무·플라스틱 등이 수출특화에서 수입특화로 전환됨.
- 한편 수입특화에서 수출특화로 전환된 품목은 1차 산품 및 인쇄·기록매체로, 구리광, 은광 및 일부 인쇄출판물 등의 수출 증가에 따른 것이지만 전체 교역 비중은 미미한 품목임.

그림 28. 한국의 가공단계별 대중국 무역특화지수



자료: 중국해관통계, KITA.

그림 29. 한국의 업종별 대중국 무역특화지수



자료: 중국해관통계, KITA.

■ 중간재 조달에 있어 대중국 의존 심화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반면, 중국 수입시장 내 한국의 경쟁력 저하, 재중국 투자기업의 경영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대중국 수출이 둔화됨.

-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018년에 9.6%에서 2023년에는 6.3%로 하락하였으며, 특히 중간재 수입시장 점유율은 14.6%에서 11.1%로, 자본재 수입시장 점유율은 10.5%에서 6.2%로 급락함.
-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현지 중간재 조달 확대 및 현지 경영 악화¹³⁾에 따라, 재중 한국 기업향(向) 중간재 수출은 2018~23년 연평균 1.5%씩 감소하였으며, 2022년에는 전년대비 16.8% 감소함.
 - 한국 브랜드 자동차의 중국 내 판매가 2018년 118만 대에서 2023년 41만 6천 대로 급감(연평균 -18.8%)하면서 한국의 대중국 자동차부품 수출액도 26억 9천만 달러에서 12억 6천만 달러로 급감(연평균 -14.1%)
 - 또한 재중 부품기업들이 한국으로 수출을 확대하면서 한국의 대중국 자동차부품 수입액은 31억 8천만 달러에서 48억 3천만 달러(연평균 +6.4%)로 증가

13) 수출입은행(2023), 『2022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그림 30. 가공단계별 중국 수입시장 내 한국의 점유율 변화

(단위: %)



자료: 중국해관통계, KITA.

표 9. 재중국 한국기업의 대한국 수출입 효과

구분	2018	2021	2022
매출액/투자잔액(배)	3.66	3.06	2.60
영업이익율(%)	3.25	3.83	1.01
대한국 수입/매입(%)	37.6	36.2	35.4
수출유발 효과	0.97	0.70	0.53
수입유발 효과	1.37	1.11	0.92
무역수지 효과	-0.40	-0.41	-0.39

자료: 수출입은행(2023), 『2022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 중국에서 중간재 국산화가 추진되면서 중국의 최대 중간재 조달국인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중국의 수입의존도(수입액/총산출)는 2017년 5.0%에서 2020년 4.4%로 하락하였고, 수입률(수입액/총공급액)은 6.2%에서 5.7%로 낮아진 반면, 중간재 국산화율(국산 투입/중간 투입)은 92.1%에서 92.9%로 높아짐.
- 2020년 중국의 소비·투자·수출 등 최종수요의 수입유발계수가 2017년에 비해 하락하였으며, 중국의 최종수요가 한국의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비중도 2018년 1.2%에서 2020년 1.0%로 소폭 하락함.¹⁴⁾

그림 31. 중국 산업생산 구조의 변화

(단위: %)



자료: 중국산업연관표, CEIC.

그림 32. 중국의 최종수요 항목별 수입유발계수



자료: 한국은행 조사국(2023) 재인용.

14) 유발비중 = (국가별 중국 최종수요에 의한 부가가치 유발액) / (중국 최종수요에 의한 총부가가치 유발액). 한국은행 조사국(2023), 「중국 성장구조 전환과정과 파급영향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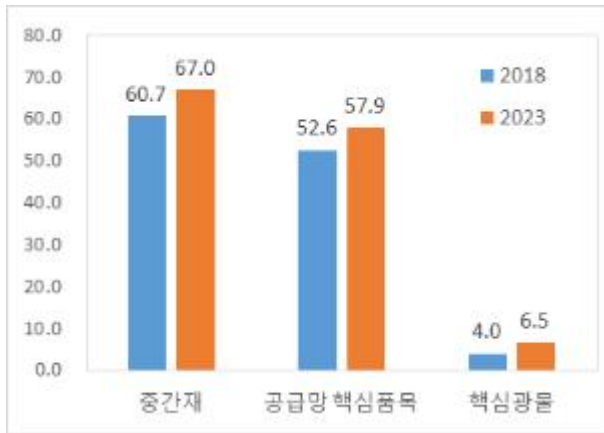
라. 공급망 핵심품목¹⁵⁾: 대중국 의존 심화

■ 최근 5년간 한국의 대중국 수입구조가 중간재 및 공급망 핵심품목 중심 구조로 전환되고 있어 한국의 경제안보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음.

- 한국의 대중국 수입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60.7%에서 2023년 67.0%로 확대되었고, 공급망 핵심품목(핵심광물, 에너지, ICT, 공중보건)의 비중은 52.6%에서 57.9%로, 핵심광물(A) 비중은 4.0%에서 6.5%로 상승함.

그림 33. 대중국 수입 중 공급망 핵심품목 비중

(단위: %)



자료: 한국무역통계, KITA.

그림 34. 공급망 핵심품목의 대중국 수입의존도

(단위: %)



자료: 한국무역통계, KITA.

그림 35. 4대 공급망 핵심품목별 대중국 수입의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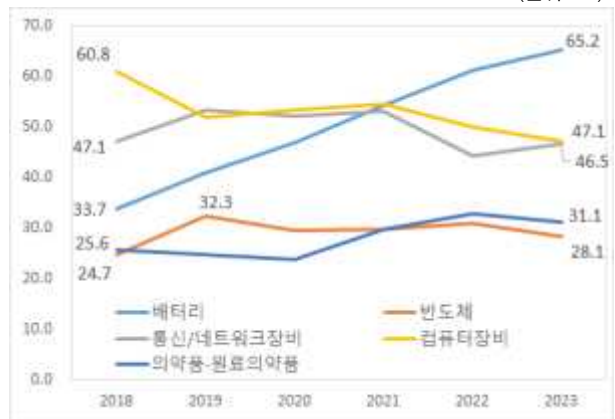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무역통계, KITA.

그림 36. 공급망 세부품목별 대중국 수입의존도

(단위: %)



자료: 한국무역통계, KITA.

15) 본고의 공급망 핵심품목 분석은 미국 ITA가 발표한 '핵심 공급망 리스트 초안'의 4개 품목군(핵심광물, 에너지, ICT, 공중보건)을 적용한 것이며, 여기서 핵심광물(A)은 중국 기준의 핵심광물(C)과는 일부 차이가 있음. 미국 상무부 ITA(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America's Supply Chains)에 근거하여, 2022년 10월 핵심 공급망 리스트 초안(DRAFT LIST OF CRITICAL SUPPLY CHAINS)을 공개하였으며, 동 리스트는 핵심광물, 에너지, ICT, 공중보건의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ITA Federal Register Notice on Draft List of EO 14017 Critical Supply Chains, <https://www.trade.gov/data-visualization/draft-list-critical-supply-chains>(검색일: 2024. 2. 18.).

- 같은 기간 한국의 대중국 수입의존도는 19.9%에서 22.2%로 상승하였는데, 그중 중간재 수입의 대중국 의존도는 24.6%에서 28.8%로, 공급망 핵심품목은 16.5%에서 19.5%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핵심광물(A) 수입에서는 14.0%에서 21.6%로 증가함.

■ 4대 공급망 핵심품목¹⁶⁾별 한국의 대중국 수입의존도는 에너지 및 핵심광물(A)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ICT의 경우 하락하고는 있으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그림 35 참고).

- 세부 품목 기준으로, 배터리의 대중국 수입의존도는 2018년 33.7%에서 2023년 65.2%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반도체는 2019년의 32.3%를 정점으로 점진적인 하락세가 나타남(그림 36 참고).
- 또한 통신장비, 컴퓨터 장비, 시청각 장비, 기타 전자부품의 대중국 수입의존도는 하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37~47%)을 유지하고 있음(부표 4 참고).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선정한 핵심광물(K)¹⁷⁾을 대상으로 한·중 무역을 분석한 결과, 핵심광물(K)이 중요한 대중국 수입품으로 자리잡아가는 가운데, 핵심광물(K)에 대한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및 수입의존도가 확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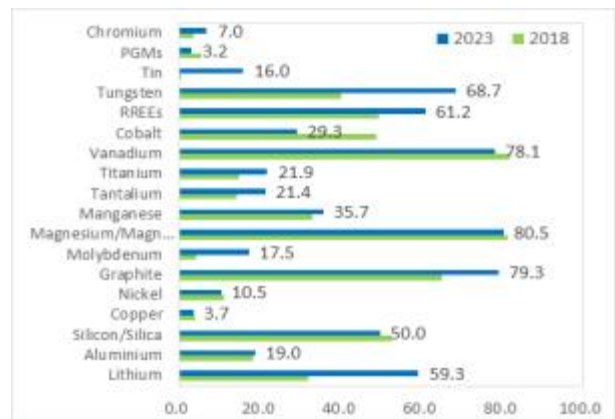
- 핵심광물(K)의 대중국 수출액은 2018년 38억 달러에서 2023년 64억 달러(연평균 +11.0%)로 증가하였고, 수입은 42억 달러에서 93억 달러(연평균 +17.0%)로 증가하여,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4억 달러에서 29억 달러로 확대됨.
 - 특히 2021년 이후 대중국 수입 및 수입의존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임.
- 최근 5년간 코발트를 제외하고, 대용량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광물(흑연, 리튬, 희토류)과 실리콘 수입의 대중국 의존도가 상승함.

그림 37. 핵심광물(K)의 대중국 수입액 및 의존도



자료: 한국무역통계, KITA.

그림 38. 주요 핵심광물(K)의 대중국 수입의존도 변화



자료: 한국무역통계, KITA.

16) 핵심광물(A), 에너지, ICT, 공중보건.

17) 산업통상자원부가 2023년 2월, 「첨단산업 글로벌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광물 확보전략」에서 33개 핵심광물을 지정하고, 그중에서 전기차·이차전지·반도체 분야의 공급망 안정화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선정함. 33종 핵심광물은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5종), 니오븀, 구리, 알루미늄, 규소, 마그네슘, 몰리브덴, 바나듐, 백금족(2종), 주석, 타이타늄, 텅스텐, 안티모니, 비스무스, 크롬, 연, 아연, 갈륨, 인듐, 탄탈륨, 지르코늄, 스트론튬, 셀레늄 등이며, 10대 전략 핵심광물은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5종) 등임. 희토류는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븀 (이상 영구자석 제조 광물), 세륨, 란탄 (이상 반도체 연마제 제조 광물)을 포함함. 이러한 한국 기준의 핵심광물을 핵심광물(K)로 구분하여 분석에 적용함.

- 대용량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인 흑연, 리튬, 희토류 등 주요 광물자원(K)의 한국 수입에서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중국의 수출 통제가 시작된 흑연 역시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임.
- 중국이 세계의 최대 공급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광물자원(텅스텐, 바나듐, 마그네슘, 안티모니, 비스무스 등)에서 한국의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표 10. 한국의 대중국 핵심광물(K) 수입규모 및 대중국 수입의존도 변화

(단위: 백만 달러, %)

광물	대중국 수입(2023년)			대중국 수입의존도		중국 수출 중 한국 비중		세계 주요 공급자	
	수출	수입	무역수지	2018	2023	2018	2023	공급자	중국 비중
알루미늄	900.4	1,446.9	-546.5	18.3	19.0	7.9	5.0	Australia	23
안티모니	0.5	43.8	-43.3	89.2	73.3	9.6	0.1	China	56
비스무스	0.9	2.1	-1.2	23.3	67.3	0.0	2.3	China	70
코발트	1.1	72.6	-71.6	49.1	29.3	55.3	0.2	DRC	63
구리	4,113.1	465.6	3,647.5	3.9	3.7	10.1	55.7	Chille	28
크롬	0.2	50.7	-50.5	3.7	7.0	8.8	0.0	S. Africa	-
흑연	99.6	253.1	-153.5	65.2	79.3	28.3	4.6	China	67
니켈	450.7	286.4	164.2	11.2	10.5	34.3	10.2	China	33
리튬	424.1	5,130.8	-4,706.7	32.1	59.3	42.7	0.5	China	56
납	1.3	3.7	-2.4	0.0	0.2	0.1	0.2	China	42
망간	1.9	151.1	-149.1	33.0	35.7	17.9	0.2	S. Africa	28
마그네슘	0.5	159.7	-159.2	81.4	80.5	5.7	0.0	China	91
실리콘	50.4	554.9	-504.5	52.6	50.0	16.3	1.3	China	76
몰리브덴	115.0	252.1	-137.2	4.5	17.5	17.5	7.0	China	42
아연	191.7	7.7	184.0	0.3	0.4	0.9	94.8	China	33
지르코늄	0.0	1.2	-1.2	0.8	1.7	2.9	0.0	S.Africa/ Australia	31
백금족	14.1	52.3	-38.2	5.7	3.2	0.8	13.4	S.Africa/ Russia	-
* 팔라듐	1.0	0.0	1.0	0.0	0.0	0.9	5.5	Russia	40
* 플래티늄	13.1	52.3	-39.1	16.3	7.2	0.8	16.8	S. Africa	71
희토류	6.7	70.6	-64.0	49.5	61.2	6.2	0.6	China	75
스트론튬	0.0	10.2	-10.2	29.6	39.4	13.0	0.0	Iran	35
탄탈륨	28.5	87.9	-59.4	14.4	21.4	6.7	1.5	DRC	35
주석	19.0	66.6	-47.6	0.5	16.0	0.3	6.1	China	23
티타늄	28.4	87.0	-58.6	15.1	21.9	6.6	1.5	China	43
텅스텐	2.9	69.5	-66.6	40.3	68.7	2.8	1.2	China	86
바나듐	0.2	87.0	-86.8	81.8	78.1	36.2	0.1	China	62
셀레늄	14.0	6.5	7.5	7.1	58.6	1.8	10.9	China	42
기타	10.4	73.2	-62.9	62.4	83.0	17.3	4.0		-

자료: 한국무역통계, KI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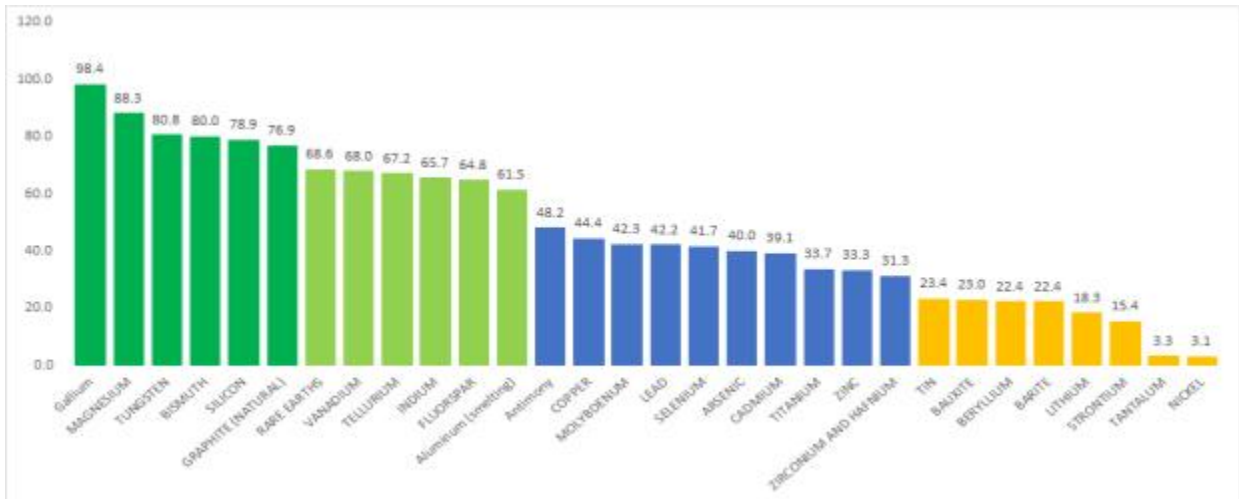
4. 평가 및 시사점

- 2023년 중국은 수출입 둔화에도 자동차 수출 약진 등 수출 품목 다각화, 에너지 및 핵심광물의 전략적 수입 확대, 개도국으로 교역 대상 전환, 수출입 내 외자기업 비중 축소 등의 특징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지속될 전망이다.
 - 글로벌 ICT 경기 및 내수 부진으로 중국의 컴퓨터·전자 제조 관련 수출입이 둔화되었으나 전기차, 이차전지 배터리 및 태양전지 등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컴퓨터·전자 중심의 수출 구조가 다원화됨.
 - 또한 중간재 중심의 수출 구조가 강화되면서 중간재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됨.
 - 한편 철광석·금 등 광물 수입 증가와 원유 등 에너지 적자 확대로 1차 상품의 적자가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며, 특히 공급망 우위를 점하는 핵심광물의 전략적 수입까지 급증하며, 세계 핵심광물 수입에서 중국이 28%를 차지함.
 - 중국은 세계 생산에서 중국의 비중이 낮은 구리, 니켈, 크롬 등에 대한 수입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 생산 비중이 과반인 희토류, 바나듐에 대해서도 최근 수입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음.
 - 또한 미중 전략경쟁, 지정학적 갈등 요인으로 미국, EU 등 선진국과의 무역이 둔화되는 반면 ASEAN, 중남미 등 개도국과의 교역 비중은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의 수출입에서 외자기업 비중은 지속 하락함.
 - 이러한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는 중국의 산업 수요 및 경쟁력 변화, 경제안보 전략 및 대외정책 등이 반영된 결과이며, 미중 경쟁 및 진영 갈등 등 대외여건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일정 기간 지속될 것임.
- 구조적으로 한국의 대중국 의존이 심화되고 있고 중국의 자급화 및 수입선 다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현재와 같은 상품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중장기적으로 제약을 받게 될 것이며, 그 결과 대중국 무역적자 구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큼.
 - 중국에 대한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수입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수출특화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
 - 중국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은 중국 수입 수요의 변화와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 간의 괴리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함.
 -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집중된 중간재 및 전자·화학 품목은 중국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수입 비중이 축소 되는 분야임.
- 광물 수요의 대부분(약 95%)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주요 광물 생산·공급 국가와의 다각화된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임.
 - 중국이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핵심광물을 무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핵심광물 조달에 있어 과도하게 중국에 의존하는 것은 우리의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중국은 희토류의 생산 쿼터 실시, 태양광 패널 및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통제(2023. 7. 이후), 전기차 배터리의 재료인 흑연 수출 통제(2023. 12. 이후)를 실시하고 있음.¹⁸⁾

- 한국 기준의 핵심광물(K)을 대상으로 분석한 중국의 핵심광물(K)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2.4%에서 2023년 21.2%로 높아졌으며, 중국 기준의 핵심광물(C)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12.1%에서 2023년 22.4%로 높아짐.
- 한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전략의 일환으로 한·호주 핵심광물 협정(2021),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2022. 5.) 핵심광물 대화체,¹⁹⁾ 광물안보파트너십(MSP: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2022. 6.)²⁰⁾에 참여하고 있음.
- 다만 핵심광물의 지정학적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특정국에 경도되지 않는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통해 공급망 안보를 확보해야 함.
- 따라서 중간재 및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중국과의 협력 채널 강화 역시 필요함.

그림 39. 주요 광물의 세계 생산 중 중국의 비중(2023년)

(단위: %)



자료: USGS(2024),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24.

■ 중국의 경제·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새로운 수입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우리의 공급 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특히 중국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수입특화 구조를 가진 제품군에서 한국의 공급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최근 5년간 중국의 수입증가율 및 무역특화지수, 중국 수입시장 내 경쟁력(점유율 비교) 등을 분석한 결과(부표 5 참고), 중국의 고급 소비재, 저탄소·그린 전환 관련 제품, 공중보건 및 디지털 전환 관련 제품에 대한 대중국 수출 확대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8)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2023. 7. 3.), 「商務部 海關總署公告2023年第23号 关于对镓、锗相关物项实施出口管制的公告」;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2023. 10. 20.), 「商務部 海關總署关于优化调整石墨物项临时出口管制措施的公告」.

19)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역내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핵심광물 대화체(Critical Mineral Dialogue)를 발족함. IPEF 광물 매장량 종합 지도를 작성하고, 핵심 광물 채굴·제련용 화학제품·기계 등에서 무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며, 광물정책 관련 전문지식 및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있음.

20) 중요광물의 공급 회복력 강화를 목적으로 ① 정보공유 협력(Information Sharing and Cooperation), ② 투자 네트워크(Investment Network), ③ ESG기준 강화(Elevation of ESG Standard), ④ 리사이클링 및 구제(Recycling and Reuse) 등 4대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현재 미국, 일본, 한국, 호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EU 등이 참가하고 있음.

- 중국의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는 품목에는 영유아용 및 고급 식료품, 고급 소비재, 공공위생 관련 제품(의료기기 및 장비 등)이 포함되며, 저탄소·그린 전환 제품으로는 에너지 전환과 친환경 관련 제품이 해당함.
- 또한 신물질, 우주항공 등 중국의 미래산업 육성 과정에서 새롭게 나타날 병목(bottle neck) 분야에서 한국의 공급역량 및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
- 이 밖에도 LFP 배터리의 성능 향상 및 상용화를 통해 전기차 보급을 앞당긴 중국이 새롭게 개발하고 실험하는 기술 및 제품에 대해 모니터링하여 수요 변화를 파악하면서도 경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KIEP**

부표 1. 중국의 가공단계별 수출입 구조 및 변화(2018~23년)

(단위: 억 달러, %)

구분	수출						수입					
	2018		2023		2018~23 CAGR	2023 증가율	2018		2023		2018~23 CAGR	2023 증가율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1차 상품	164	0.7	209	0.6	5.0	-12.2	5,020	23.5	7,842	30.6	9.3	0.7
농산물	81	0.3	86	0.3	1.2	-8.7	766	3.6	1,162	4.5	8.7	-0.4
광산물	46	0.2	73	0.2	9.5	-12.9	1,441	6.7	2,593	10.1	12.5	7.7
에너지	32	0.1	40	0.1	5.0	-15.8	2,768	13.0	4,079	15.9	8.1	-3.1
2. 소비재	9,277	37.3	11,929	34.9	5.2	-3.9	1,902	8.9	2,568	10.0	6.2	-4.2
음식료품 (미가공)	187	0.8	218	0.6	3.2	4.3	150	0.7	326	1.3	16.8	6.4
음식료품(가공)	431	1.7	468	1.4	1.7	-2.0	432	2.0	660	2.6	8.9	-8.1
승용차	79	0.3	755	2.2	57.0	77.8	496	2.3	459	1.8	-1.5	-12.1
내구소비재	2,592	10.4	2,991	8.7	2.9	-9.6	186	0.9	254	1.0	6.4	9.6
반내구소비재	5,116	20.6	6,298	18.4	4.2	-6.6	250	1.2	332	1.3	5.8	0.6
비내구소비재	750	3.0	1,035	3.0	6.6	-3.6	384	1.8	523	2.0	6.4	-6.0
기타 운송장비 (산업용 제외)	122	0.5	164	0.5	6.1	-8.6	5	0.0	13	0.0	21.0	-8.3
3. 자본재	4,340	17.4	5,477	16.0	4.8	-2.8	2,752	12.9	2,299	9.0	-3.5	-1.1
자본재 (운송장비 제외)	3,845	15.4	4,687	13.7	4.0	-5.1	2,442	11.4	2,188	8.5	-2.2	-1.0
산업용 운송장비	496	2.0	790	2.3	9.8	13.7	310	1.4	110	0.4	-18.7	-2.8
4. 중간재	11,048	44.4	15,950	46.6	7.6	-8.0	11,545	54.1	12,817	50.0	2.1	-10.2
음식료품	37	0.2	57	0.2	8.7	1.6	119	0.6	226	0.9	13.7	1.1
산업용 원자재	5,203	20.9	7,872	23.0	8.6	-10.0	4,767	22.3	5,437	21.2	2.7	-6.9
에너지	413	1.7	553	1.6	6.0	-0.8	611	2.9	951	3.7	9.3	0.1
자본재 부품·부분품	4,464	17.9	6,151	18.0	6.6	-8.4	5,473	25.6	5,704	22.2	0.8	-15.5
운송장비 부품	930	3.7	1,318	3.9	7.2	4.7	575	2.7	499	1.9	-2.8	-3.1

주: 가공단계 분류 기준은 BEC 4이며, 1차 상품 및 자본재의 기타 항목은 제외함.
자료: 중국무역통계, KITA.

부표 2. 중국 업종별 수출입 구조 및 변화(2018~23년)

(단위: 억 달러, %)

구분	수출						수입						
	2018		2023		2018~ 23 CAGR	2023 증가율	2018		2023		2018~ 23 CAGR	2023 증가율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농산물	66	0.3	71	0.2	1.4	-0.1	70	0.3	231	0.9	26.8	0.1	
광업	석탄	8	0.0	11	0.0	8.2	-0.1	248	1.2	530	2.1	16.4	0.2
	석유·천연 가스	31	0.1	45	0.1	7.9	-0.2	2,905	13.6	4,202	16.4	7.7	-0.1
	희석금속 광(철광)	8	0.0	26	0.1	27.2	-0.2	757	3.5	1,326	5.2	11.9	0.1
	유색금속 광(비철금 속광)	3	0.0	9	0.0	27.0	0.6	603	2.8	1,040	4.1	11.5	0.1
	비금속 광물	34	0.1	34	0.1	0.2	-0.2	70	0.3	215	0.8	25.1	0.4
	농·부식품 가공품	501	2.0	543	1.6	1.6	0.0	930	4.4	1,692	6.6	12.7	0.0
식료품	141	0.6	206	0.6	7.8	0.0	174	0.8	229	0.9	5.6	0.0	
주류·음료	53	0.2	59	0.2	2.2	0.0	75	0.3	77	0.3	0.7	0.1	
담배	14	0.1	92	0.3	45.5	0.2	18	0.1	23	0.1	5.1	0.3	
섬유	861	3.5	948	2.8	1.9	-0.1	208	1.0	170	0.7	-4.0	-0.1	
의류·의류장식품	1,500	6.0	1,625	4.8	1.6	-0.1	76	0.4	96	0.4	4.6	0.0	
피혁·모피·신발	817	3.3	964	2.8	3.4	-0.1	138	0.6	165	0.6	3.7	0.0	
목재가공 나무·죽 등 제품	179	0.7	203	0.6	2.6	-0.1	250	1.2	179	0.7	-6.4	-0.2	
가구	637	2.6	778	2.3	4.1	0.0	31	0.1	18	0.1	-10.2	-0.1	
종이·종이제품	186	0.7	287	0.8	9.1	-0.1	300	1.4	307	1.2	0.4	0.0	
인쇄·기록매체	46	0.2	54	0.2	3.3	-0.1	23	0.1	22	0.1	-0.9	-0.1	
문교·예술·체육· 오락용품	649	2.6	1,040	3.0	9.9	-0.1	126	0.6	129	0.5	0.6	-0.3	
석유·석탄· 기타연료 가공	417	1.7	574	1.7	6.6	0.0	345	1.6	406	1.6	3.3	0.1	
화학원료· 화학제품	1,363	5.5	2,036	6.0	8.4	-0.2	1,795	8.4	1,877	7.3	0.9	-0.1	
의약품	174	0.7	207	0.6	3.5	-0.1	296	1.4	457	1.8	9.1	0.1	
화학섬유	354	1.4	464	1.4	5.6	0.0	155	0.7	73	0.3	-14.1	-0.2	
고무·플라스틱	830	3.3	1,345	3.9	10.1	0.0	277	1.3	251	1.0	-1.9	-0.1	
비금속광물	514	2.1	682	2.0	5.8	-0.1	116	0.5	96	0.4	-3.7	-0.2	
철강	603	2.4	875	2.6	7.7	-0.1	245	1.1	388	1.5	9.6	-0.1	
비철금속	461	1.9	651	1.9	7.1	-0.1	1,345	6.3	1,992	7.8	8.2	0.0	
금속제품	932	3.7	1,456	4.3	9.3	-0.1	165	0.8	133	0.5	-4.2	-0.1	
통용설비	1,268	5.1	1,738	5.1	6.5	0.0	654	3.1	559	2.2	-3.1	-0.1	
전용설비	620	2.5	1,074	3.1	11.6	0.0	682	3.2	780	3.0	2.7	0.1	
자동차	661	2.7	1,714	5.0	21.0	0.3	867	4.1	727	2.8	-3.5	-0.1	
철도·조선·우주항 공기·기타 운송장비	826	3.3	1,101	3.2	5.9	0.0	616	2.9	436	1.7	-6.7	0.0	
전기기계·기구	2,227	8.9	3,704	10.8	10.7	0.0	688	3.2	571	2.2	-3.7	-0.1	
컴퓨터·통신·기타 전자설비	7,310	29.4	8,135	23.8	2.2	-0.1	5,478	25.6	5,581	21.8	0.4	-0.1	
계측기기	298	1.2	427	1.2	7.5	0.0	475	2.2	527	2.1	2.1	0.0	
기타 제조업	228	0.9	372	1.1	10.3	0.0	24	0.1	23	0.1	-1.5	0.0	
전력	15	0.1	17	0.1	2.6	0.1	3	0.0	2	0.0	-5.0	-0.3	

자료: 중국해관통계, KITA.

부표 3. 2023년 중국의 핵심광물(C) 수출입 규모 및 증가율

(단위: %)

광물	세계 수출 중 중국 비중		중국 수출 CAGR (2018-'22)	세계 수입 중 중국 비중		중국 수입 CAGR (2018-'22)
	2018	2022		2018	2022	
핵심광물(C)	6.0	7.3	8.6	23.2	28.2	13.8
알루미늄	10.9	12.6	2.7	6.3	8.6	15.4
안티모니	36.0	40.4	6.1	18.6	9.2	-6.5
코발트	6.2	8.5	-20.7	44.4	57.2	-8.7
구리	1.8	2.2	9.1	37.9	42.7	9.4
크롬	2.3	3.0	5.3	41.8	39.4	10.2
흑연	33.6	51.5	17.0	12.0	11.2	1.2
*인조흑연	26.3	50.4	24.4	12.7	10.6	1.2
니켈	1.9	4.1	35.6	31.2	49.0	25.1
리튬	26.3	31.6	64.3	16.1	42.8	76.3
몰리브덴	6.6	10.8	24.7	3.7	7.8	38.5
지르코늄	3.6	4.2	7.5	42.8	48.8	6.4
백금족	0.4	0.1	-7.8	8.5	9.0	14.9
희토류	18.2	10.5	8.6	37.7	69.9	60.4
탄탈륨	24.2	26.1	0.6	8.6	10.8	1.2
텅스텐	31.4	25.6	-5.0	6.8	7.8	9.0
바나듐	22.3	22.9	-17.4	0.0	3.5	134.0
셀레늄	7.2	10.1	18.9	15.4	9.3	-7.2
인듐, 갈륨, 게르마늄, 니오븀, 레늄	21.0	30.3	10.1	7.2	7.1	22.4
기타	11.8	14.5	7.3	7.2	5.3	9.0

자료: 중국해관통계, KITA.

부표 4. 4대 공급망 핵심품목의 대중국 수입액 및 수입의존도

	대중국 수입(억 달러)			대중국 수입의존도(%)			대한국 수출/ 중국 수출(%)	
	2018	2023	CAGR (%)	2018	2023	증가분 (%P)	2018	2023
4대 공급망 핵심품목	498	827	10.7	15.4	19.5	4.1	5.2	5.4
Critical Materials	61	171	22.9	3.3	7.5	4.2	8.9	11.0
Primary	6	7	1.5	23.4	20.4	-3.0	13.2	12.5
Processed	55	164	24.5	3.0	7.3	4.3	8.7	11.0
Energy	142	343	19.3	9.8	18.7	8.9	5.4	6.6
Battery	40	195	37.6	33.7	65.2	31.5	14.0	18.4
Solar	29	36	4.9	27.5	30.8	3.3	8.8	3.9
Wind	10	15	8.2	5.7	6.2	0.5	4.8	5.2
Nuclear Power	6	44	47.8	35.4	72.1	36.7	9.8	7.4
Hydropower	7	12	10.7	9.4	12.0	2.6	3.3	3.4
Fuel Cells	65	95	8.0	26.1	32.2	6.1	3.7	3.8
Electric Grid	7	8	3.0	0.7	0.7	0.0	5.8	3.2
Carbon Capture	3	6	11.1	0.4	0.7	0.2	5.1	4.2
Neodymium Magnets	3	6	18.4	16.2	26.4	10.2	6.1	6.8
ICT	335	467	6.9	33.5	33.4	-0.1	5.1	4.5
Semiconductors	165	265	10.0	24.7	28.1	3.4	12.3	9.2
Telecom/Network Equipment	47	96	15.6	47.1	46.5	-0.6	2.3	2.2
Computer Equipment	99	80	-4.2	60.8	47.1	-13.8	3.2	2.8
Audiovisual Equipment	22	22	-0.1	46.5	36.9	-9.6	3.1	3.2
Other Electronic Components	44	52	3.7	38.8	39.4	0.6	4.5	4.7
Public Health	70	117	10.7	24.9	29.8	4.9	5.3	5.5
Pharmaceuticals & API	52	87	10.9	25.6	31.1	5.5	6.8	7.5
Medical Equipment	21	30	7.7	20.2	25.2	5.1	4.2	3.8
Testing and Diagnostics	3	6	16.0	7.6	8.0	0.3	2.4	2.6

자료: 중국해관통계, KITA.

부표 5. 각종 분류에 따른 중국의 수입과 주요국 점유율(2018년과 2023년 비교)

제품군	중국의 수입액 (억 달러)			중국 무역특화지수		주요국의 점유율 (%)							
	2018	2023	연평균 증가율 (%)	2018	2023	한국		독일		일본		미국	
						2018	2023	2018	2023	2018	2023	2018	2023
1. 1차 산품	5,020	7,842	9.3	-0.94	-0.95	0.1	0.0	0.1	0.1	0.3	0.1	4.5	5.0
2. 소비재	1,902	2,568	6.2	0.66	0.65	3.1	2.4	12.5	10.4	10.3	7.6	11.1	9.7
2.1. 음식료품	581	986	11.1	0.03	-0.18	1.5	1.4	3.2	1.7	1.5	1.2	7.1	7.5
**유아용조제식료품	49	43	-2.6	-0.88	-0.93	1.6	0.9	10.1	7.0	0.0	0.0	1.9	0.4
**유제품	41	53	5.2	-0.95	-0.95	0.5	0.3	4.9	5.3	0.2	0.3	2.1	1.4
2.2. 승용차	496	459	-1.5	-0.72	0.24	0.0	0.7	28.0	33.5	20.3	17.3	20.5	18.3
**NEV	33	81	20.0	-0.73	0.68	0.1	0.6	9.7	17.6	43.4	55.6	40.5	16.0
2.3. 내구소비재	186	254	6.4	0.87	0.84	3.4	2.5	8.8	6.5	6.9	5.3	11.6	9.9
**생명과학기술제품	35	35	0.3	-0.48	-0.27	0.4	0.3	9.6	12.7	0.4	2.5	35.1	29.6
**귀금속	12	53	34.0	0.83	0.46	0.1	0.0	0.6	0.5	0.8	0.6	14.3	13.4
2.4. 반내구소비재	250	332	5.8	0.91	0.90	3.7	2.4	4.6	3.3	9.6	5.1	5.2	3.4
** 휴대전화기	3	17	42.3	1.00	0.98	0.9	0.1	0.1	0.0	2.8	0.5	0.5	0.0
2.5. 비내구소비재	384	523	6.4	0.32	0.33	9.0	5.6	13.2	13.2	12.7	13.9	8.4	10.4
**공공위생제품	191	266	6.8	-0.32	-0.31	1.0	1.1	21.9	22.3	5.1	7.3	6.0	9.6
**화장품	103	155	8.4	-0.59	-0.58	25.5	13.3	1.8	1.6	22.5	22.6	9.1	10.3
3. 자본재	2,752	2,299	-3.5	0.22	0.41	10.5	6.2	10.9	11.9	16.6	17.5	12.7	9.8
*반도체장비	223	425	13.7	-0.80	-0.80	12.6	6.4	3.8	2.7	25.4	26.1	19.4	13.9
*의료장비 및 기기	172	203	3.4	-0.16	0.03	4.4	5.2	16.3	15.4	17.9	15.8	23.1	20.7
*우주항공	298	114	-17.5	-0.83	-0.30	0.1	0.1	12.1	20.8	1.5	3.5	54.7	32.8
4. 중간재	11,545	12,817	2.1	-0.02	0.11	14.6	11.1	4.5	4.0	9.8	7.8	6.6	6.2
4.1. 부품	6,048	6,202	0.5	-0.06	0.09	18.5	15.3	5.2	4.9	10.5	8.6	5.5	4.8
1) 반도체	3,311	3,666	-0.3	-0.44	-0.37	25.9	18.8	0.5	0.5	5.0	5.7	3.7	2.3
*메모리	1,416	945	-7.8	-0.23	-0.06	47.6	39.6	0.1	0.0	5.4	7.0	0.6	0.6
*시스템 반도체	1,895	2,721	7.5	-0.64	-0.53	9.8	11.6	0.8	0.6	4.7	5.2	6.0	2.8
2) 휴대전화 부품	423	82	-28.0	0.10	0.60	9.6	23.5	0.2	0.8	5.0	4.7	0.6	0.8
3) 기타 전자부품	948	1,228	5.3	0.02	0.20	11.1	12.6	5.9	5.0	15.4	9.4	4.1	2.3
4) 우주항공부품	97	140	7.6	-0.16	-0.31	1.0	1.0	7.0	6.9	2.6	3.3	46.3	51.5
5) 자동차부품	368	263	-6.5	0.25	0.55	6.8	4.5	27.8	31.3	27.7	17.1	6.6	6.7
6) 배터리	44	28	-8.4	0.44	0.92	23.8	16.1	2.3	12.2	18.2	9.2	1.8	1.9
7) 전자기기부품	242	203	-3.4	0.56	0.71	11.8	9.8	9.7	10.3	20.6	20.0	8.0	8.5
8) 계측 및 광학기기 부품	91	91	-0.1	-0.09	0.07	6.8	7.7	7.6	10.6	19.0	18.4	9.0	8.9
4.2. 산업용 원자재	4,887	5,663	3.0	0.03	0.17	10.5	7.7	4.0	3.7	9.8	8.0	8.1	6.8

1) 음식료 원자재	119	226	13.7	-0.52	-0.60	0.3	0.3	1.1	1.3	0.1	0.2	3.6	2.6
2) 산업용원자재	4,767	5,437	2.7	0.04	0.18	10.7	8.0	4.1	3.8	10.1	8.4	8.2	7.0
*배터리 소재	81	140	11.7	-0.12	0.03	20.1	10.2	7.1	4.1	29.4	14.4	13.9	6.5
*희토류	21	183	54.1	0.19	-0.56	0.7	0.1	1.1	0.1	6.2	0.6	5.2	1.7
*화학원료	1,555	1,495	-0.8	-0.14	0.06	16.9	16.9	4.3	5.5	11.4	11.0	9.3	11.6
**기초화학원료	650	589	-1.9	0.02	0.22	23.2	24.5	4.0	4.1	12.3	10.4	6.9	9.7
**전용화학제품	164	245	8.3	-0.16	-0.12	7.7	7.1	7.4	13.4	19.3	17.2	22.9	18.8
*화학섬유	155	73	-14.1	0.39	0.73	9.2	7.3	1.5	2.2	9.1	11.7	2.8	9.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194	170	-2.6	0.47	0.67	15.4	14.5	8.7	8.3	27.3	30.7	12.6	11.9
**합성수지	127	114	-2.1	0.24	0.49	19.3	18.4	6.6	6.8	31.7	37.0	13.6	12.8
4.3. 윤활유 및 석유제품	611	951	9.3	-0.19	-0.27	10.3	3.7	1.1	0.5	3.0	1.2	5.0	11.4
*석유가공제품	202	276	6.5	0.28	0.28	28.8	12.0	1.1	0.5	5.5	1.3	3.5	0.6
*윤활유	21	18	-2.9	-0.83	-0.63	3.3	3.2	21.8	20.7	28.6	38.0	15.9	16.9
5. 중국의 하이테크 제품 분류	6,760	6,885	0.4	0.06	0.11	17.9	13.8	4.2	4.4	8.6	8.5	8.2	6.4
*바이오	25	89	29.2	-0.45	-0.71	0.2	0.1	0.5	1.8	0.4	0.1	32.2	9.6
*생명과학	391	532	6.3	-0.07	-0.06	1.4	1.3	23.0	22.7	6.8	7.3	20.3	19.0
*광학	411	295	-6.4	-0.16	0.13	23.1	12.7	5.6	8.3	13.1	13.1	5.1	9.6
*컴퓨터 및 통신장비	1,241	1,013	-4.0	0.61	0.65	11.3	15.7	1.3	1.7	4.8	2.7	2.2	1.5
*전자부품	3,644	4,004	1.9	-0.44	-0.26	23.8	17.2	1.2	1.2	6.3	6.8	4.0	2.7
*첨단장비	597	626	1.0	-0.55	-0.30	16.3	7.9	11.1	8.7	31.6	29.3	10.4	10.2
*신물질	48	58	3.6	0.22	0.37	15.2	11.2	3.4	5.0	27.0	30.0	9.5	10.1
*우주항공	395	254	-8.5	-0.60	-0.31	0.3	0.6	10.8	13.2	1.7	3.4	52.6	43.1
*기타 하이테크 제품	7	13	12.0	0.12	0.04	0.0	0.0	0.4	0.1	0.5	0.1	1.1	5.2
6. ICT 제품	5,234	5,671	1.6	0.15	0.21	19.2	15.6	1.9	1.8	7.3	7.1	3.8	2.6
*컴퓨터 및 주변기기	385	410	1.2	0.65	0.62	7.9	5.6	0.8	0.9	6.3	5.0	2.2	1.4
*통신기기	498	202	-16.5	0.66	0.83	8.3	17.4	1.1	2.4	4.6	2.7	1.8	1.8
*소비가전	111	88	-4.6	0.74	0.80	9.3	2.4	4.6	5.3	9.9	10.9	3.2	4.1
*전자부품	4,240	4,972	3.2	-0.32	-0.12	21.8	16.5	2.0	1.8	7.7	7.4	4.2	2.7

자료: 중국해관통계, KITA.